

Style **1** 조선일보

JULY 2023 vol.255



GRAIN DE CAFÉ
Cartier

TWEED DE CHANEL COLLECTION

18K 옐로우 골드, 18K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및 루비로 이루어진 변형 가능한 TWEED ROYAL 네크리스.
10.17캐럿 페어 컷 DFL 유형 11A 다이아몬드 및 37개의 오벌 컷 루비.



CHANEL
HIGH JEWELRY



TIME THE WORLD

아쿠아 테라 월드타이머와 멋진 여행을 떠나보세요. 다이얼 중앙에는 그레이드 5 티타늄 플레이트에 그려진 지구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24시간 헤질라이트 크리스탈 링이 탑재되어 낮과 밤이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을 둘러싼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나 역사의 흔적도 놓치지 마세요. 월드타이머는 1920년대의 첫 여행용 포켓 워치에서 진화한 제품입니다. 세계 지도를 담은 시계가 세계 곳곳을 누비는 당신의 여정에 함께 합니다. 새로운 오메가 월드타이머 타임피스에는 레이저 가공 기술로 제작된 블랙과 그레이 컬러 다이얼의 티타늄 에디션으로 선보입니다.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38 무브먼트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날렵한 세이프가 시원한 느낌을 배워 주는 아세타이트 소재의 크랭의 S3 28만9천원 **렌즈온스타**.

강력한 프론트와 돋보이는 알맞은 EVA 소재의 D-WAVE 신발 1백만원대 **다움**.

창이 넓은 디자인으로 자외선과 햇빛을 차단하는 데 유용한 천연조 9인드 섀넬 14만원 **피레티 골프**.

유아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프린트 크림블 조켓탑 드레스 가격 미정 **폴로 말프 로렌**.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하는 100% 실크 소재의 프루트 디블 사이드 넥카라프 25만원 **토리버치**.

유아한 세이프가 대담한 후에 유독 포인트 카로 소재의 박스 카로 향물론 브라운 향물론 가격 미정 **폴로 말프 로렌**.

총 1.5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6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비마이 러브 펜던트 1천만원대 **소메**.

창원한 느낌을 부여하는 6개의 런던 블루 투이즈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노미 아이링 12만원대 **포인트 디블**.

다이얼의 미드모이젤 포인트가 눈에 띄며, 견고한 화이트 세라믹 스틸 케이스의 미드모이젤 J12 라피투자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Selection *for her*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 생동감 넘치는 프린트 플레이.
photographed by kim sa yun, oh hyun sang



오가닉 소재로 착용 시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을 선사하는 블루 플라워 먼 7부 소매 블리투스 3백만원대 **레오나르도**.



하루스의 아이코닉한 패턴이 여성스러운 매력을 배가시키는 페이즐리 타원형 헤어 클립 20만원대 **에트로**.



매혹의 개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이 카우치고우 노브란 매를 신축하는 핑크색인 드림 아이링 22만원 **스외로보스키**.



매혹적인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50자극 소재의 지퍼 단합텐 미넬리 11.5x29cm, 1백18만원 **모아나**.



신선한 느낌을 선사하는 100% 코튼 소재의 아이싱 8388원 **원앤원 맨스타**.

다음 02-3280-0104 **렌즈온스타** 070-4128-2122
폴로 말프 로렌 02-6004-0220 **피레티 골프** 1533-1631
토리버치 02-3438-6214 **소메** 02-3442-3359 **엘보** 02-6905-3709 **샤넬 워치** 080-805-9628 **포인트 디블** 02-3143-9486 **레오나르도** 02-3449-5163 **에트로** 02-3446-1969
로아베 02-3479-1785 **스외로보스키** 02-6911-0726 **모아나** 02-596-9620 **워크랜드 믹스마** 1661-4841

다음 날, 피부로 느끼는 압도적 입체 탄력

800배* 강력한 EGCG의 탄력 효능 함량으로 차원이 다른 완결피부

*EGCG 탄력 효능함량 기준치 대비 함량 비교 수치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AMORE PACIFIC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패턴에 인상적인 프린팅으로 포인트를 준 카탈 25. 25X11X15cm, 3백30만원대 루이비통.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비저널링 뉴 웨이브 네크리스 7백90만원 불가리.

경쾌한 컬러웨이 그래픽을 부채에 개성 있는 울을 연출하는 후츠 AVE57 스니커즈 2백40만원 불가리.

위트 있는 스카프 프린팅이 스타일과 분위기를 매끄럽게 채워주는 오가닉 쿨톤 스카프 스카프 84,900원 디스카이드.

컬러 렌즈가 돋보이는 100% UV 프로텍션 기능의 카탈로 산들라스 가격 미정 톱포드.

플루이드 테크닉의 배색이 다이얼에 한여름의 열정을 전하는 스틸, 스텔, 화이트 골드, 블랙이 혼용된 크라운, 크로노그래프, 탠덤인 오토매틱 셀레르모넬 2백70만원 불가리.

화려한 느낌을 전하는 컬러와 프린팅이 눈길을 사로잡는 베이비시츠 쇼츠 90만원 로로 피아나.

유리, 금 세이프의 일라카이트를 세팅한 18K 골드 소재의 뉴 크로스 링 3백80만원 스타본 헬스터.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패턴을 담은 패이퍼가 주얼리한 느낌을 부여하는 캔버스 소재의 경화 스니커즈 84만원 로에베.

간디형의 상용성을 겸비한 301사자류 소재의 롱 파우치 21,200X10cm, 7만원 흥발방.

캐주얼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개성을 부여하고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스트 워터가 돋보이는 브레이드 웨빙/리츠 포스트 브레이드 웨빙 9백40만원 톱포드.

캐주얼하면서도 단정된 느낌을 선사하는 트윌 이트노-그라프 스텔 로코 백, 20X10X5cm, 2백76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나.

어벤 시어는 배로로 활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발렌티노의 스타일링 가방 13만900원 발렌티노.

Selection

당신의 옷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화려한 프린트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sa yun, oh hyun sang



귀여운 느낌을 지어내는 프린팅 디자인이 특징인 면 소재의 반소매 프린트 코튼 셔츠 1백65만원 프리다.

루이비통 02-3432-1854 파퓰러 골드 1533-1631
 셀린느 울프 1577-8841 불가리 02-2056-0170 디스카이드2
 02-3479-1296 오디마 피게 02-553-1351 로로 피아나 02-6200-7799
 톱 포드 02-6905-3534 스타본 헬스터 02-2231-1592 로에베 032-242-2195 프리다 02-3442-1830 흥발방 1877-5408 프래드 070-4732-0479 발렌티노 가리버나 02-2015-4655 헬스나이트 02-2007-2943

brilliant dreams

불수룩 빠져드름 눈부신 광채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다이아몬드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파르 프레스스 레이스 네크리스 레이스 가변용과 세팅한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 선으로 여성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인다. 총 0.73캐럿의 7개 패어 세팅 다이아몬드의 총 0.31캐럿의 3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7백27만원, 문의 02-6905-3390 반올라프 아펠 로라스 클림 덴던트 아름다움 과 손수황의 상징인 연꽃에서 영감을 받은 단정하고 단아한 것을 지어냈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6.82캐럿의 1백5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했다. 1억1천9백만원대, 문의 1877-4128 부세론 클림 드림 마디움 네크리스 메종의 아이코닉한 공작 깃털 디자인이 자유로운 매력과 풍치는 한편, 정교하게 세팅한 화이트 골드 체인에 1개의 0.32캐럿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느낌을 연출한다. 또 총 1.02캐럿의 2백59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했다. 3천만원대, 문의 02-3277-0148 불가리 세르펜티 비아피 하우스를 대표하는 벨을 모티브로 한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비늘이 하나씩 연결된 듯한 모달시 구조와 슬림한 스퀘어이 세팅된 스타일 을 완성했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8천2백만원, 문의 02-2056-0170 포드 샹스 인버니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4.72캐럿의 5백73개의 브릴라이트 컷 다이아몬드를 네크리스 전체에 세팅하고, 총 0.30캐럿의 총 0.50캐럿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길이가 다른 양쪽 끝에 세팅해 세련된 맛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70-4732-0479 디움 파인주얼리 꾸뛰르 디움 브레이슬릿 소재, 플리즈, 드레프트 자수 등 하 우스의 디테일을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6.1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 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쇼미 비 마이 러브 네크리스 해, 롬 모티브를 재해석해 탄생했으며, 구조와 형태를 여성적이 돋보인다. 화이트 골드 소재에 브릴라이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고도 모던한 품격을 선사한다. 5천만원대, 문의 02-3442-3369 에디터 윤자영

이시스트는 사랑입니다



그토록 찬란한, 루비

뜨거운 태양처럼 강렬한 레드 컬러의 매력을 선사하는 7월의 보석, 루비. (왼쪽부터 차례대로) 그라프 피에 바타올라이 컬렉션 펜던트 총 2.02캐럿의 라운드 루비와 마르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나비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소개한다. 2천2백77만원. 문의 02-2256-6810
 카르띠에 1895 솔라이어 링 섀도우 1.53캐럿의 오벌 컷 루비를 1개를 세팅하고, 밴드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클래식한 디자인을 완성한 플래티넘 소재 링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파페르제 X 제인스 간 루비 & 다이아몬드 아이링 총 22.06캐럿의 마르즈 컷 루비와 총 2.58캐럿의 라운드 컷 루비, 그리고 총 3.57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2-4706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윤자영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STARRY SUMMER

팬디에서 여름을 맞아 별자리 모티프의 피카부를 선보인다. 화이트·블루 컬러 팔레트와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의 아이카브 별자리 일러스트레이션 프린트의 조화가 돋보이는데, 이는 하우스 고유의 유쾌함과 실용성을 강조한다. 특히 브랜드의 시그니처 백인 피카부를 캔버스 소재와 섬세한 자수 디테일의 별자리 모티브로 완성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피카부 백을 비롯한 팬디 아스트로로지 컬렉션은 전 세계 팬디 부티크와 fendi.com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피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백 8백만원. 문의 02-544-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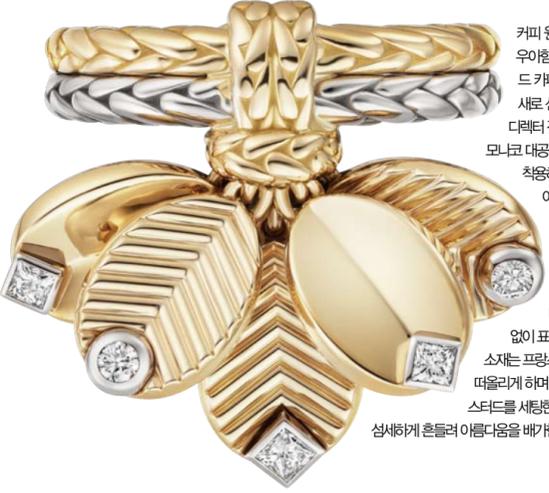


참, 귀여운

여름 스타일링에 포인트가 되어줄 큐트 액세서리.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사처럼 인형적인 디자인의 핑크 메탈로 쿼츠 컷 핑크 스톤을 중앙에 세팅한 동시스 라데일 링 29215만원 스노우로브스키, 문의 1522-9065, 풍선처럼 부푼 튜브 모양이 포인트인 모스카노 A, O형 코랄 레드 컬러 드롭 아이링 51만원 모스카노, 문의 02-3440-1340, 사벨 워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레진 소재의 브로치 가격 미정 사벨, 080-805-9628, channel.com,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송사자극 소재의 터틀 합 53만원 로아베, 문의 02-3479-1785 포토그래퍼 김사연 인턴 에디터 신영림



절대적 우아함



커피 원두에서 영감을 받아 절대적 우아함을 담아낸 카르띠에의 그랑 드 카페(Grain de Café) 컬렉션은 새로 선보인다. 1938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장느 투성이 처음 선보였고, 이후 모나코 대공비가 된 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착용하면서 1950년대에 세계적으로 이코노믹한 주얼리로 부상한 히스토리를 담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커피 원두의 둥글고 풍성한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자연에 대한 애증의 비전, 대담함과 자유분방함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 기품 있게 반짝이는 골드 소재는 프랑스 리비에라(Riviera)의 태양을 떠올리게 하며, 다이아몬드 및 루빌라이트 스토프를 세팅한 피스는 약간의 움직임에도 섬세하게 흔들려 아름다움을 배가한다. 문의 1877-4326

SKIN ESSENTIAL

타고난 피부의 한계를 넘어서 줄 수 있을까. 이모레파사막에서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마침내 탄생시킨 고도화된 피부 과학의 결정체, 압솔루티(Absolu Tea™) 앰플과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능을 발휘하는 EGCG를 혼합해 사용하는 타임 레스폰스 앰플을 소개한다. 혼합된 2개 포몰리의 강력한 에너지가 피부결, 투명도, 주름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피부에 압도적인 입체 탄력을 선사한다. 총 4병으로 구성된 강력한 효과를 위해 적정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고안했고, 일주일에 1병씩 총 4주간의 사용만으로 놀라운 피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모레파사막 타임 레스폰스 안티노브 리뉴얼 앰플 세트(앰플 7ml+파우더 0.6g)X4 62만원. 문의 080-023-5454



Lucky Wave

깊은 네이비부터 청량감을 선사하는 뽀얀 블루 등 여름이 펼쳐내는 컬러 팔레트를 고스란히 담은 빈블라프 아메의 럭키 웨이 컬렉션. 엄선한 프레스스 스톤으로 매혹 고유의 취향을 오롯이 담았다. 특히 럭키 웨이 브는 해변의 파도가 펼쳐지면서 물결이 시원하게 흐르는 순간에서 영감을 받았다. 파도가 칠 때 알갱이는 작은 물방울을 표현하기 위해 주얼리 피스의 디테일을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번갈아 배치한 것이 인상적이다. 특히 옐로 골드, 라피스 라줄리, 터키이즈, 칼세도니, 화이트 머더오브얼,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럭키 웨이 브 네크리스는 착용했을 때 움직임에 따라 우아한 반짝임을 선사하며, 휴양지의 반짝이는 바다와 파도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문의 1877-4128



BEYOND THE SEA

바세른 콘스탄틴에서 가장 스포티하고 세련된 감성을 자랑하는 오버시스(Overseas) 컬렉션이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새 모델을 출시했다. 오버시스 문메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가 그 주인공. 스포티한 감성의 상징과도 같은 블루 다이얼에 41mm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매치했으며, 6시 방향에 자리한 로메이즈를 최대한 세련되고 시크하게 연출함으로써 스포츠 워치의 품격을 높인 것이 인상적이다.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60 R3 1L/2로 구동한다. 문의 1877-4306



한여름 밤의 샴페인

무더위를 잊게 해줄 여름 샴페인. (위부터 차례대로) **보브 클리코 옐로 레이블** 글썽 거품이 일품인 샴페인으로 흰색 과실과 건포도 사탕도넛과 바닐라와 브리오슈로 아이자는 아로마가 매력적이다. 750ml 10만원. 문의 02-2188-5100 **아르망 드 브리콜 불꽃 골드** 입문에 넣으면 체력과 이국적 과일의 풍미, 그리고 레몬, 바닐라, 꿀의 은은한 풍미가 풍부하게 느껴지는 크리미한 느낌의 샴페인 750ml 가격 미정. 문의 02-2188-5100 **모엣 & 상동 임페리얼** 뽀뽀한 사과와 감귤 향, 브리오슈와 건포도의 달콤함이 열게 감동아 매혹적인 풍미를 이룬다. 750ml 92만원. 문의 02-2188-5100 **레피망 빈티지 2013** 새롭게 선보이는 이 빈티지는 우아하고 섬세한 매력과 절제된 고전적 미가 특징이다. 시트러스 향, 스톤 향, 스파이스 향이 어우러진다. 파우더로 쉽게 마무리되는 섬세하고 우아한 맛. 750ml 가격 미정. 문의 02-2188-5100 포토그래퍼 **오현상** 아사넬트 **신영림** 에디터 **상영민**



예술가, 세상을 바꾸다: JR 사례

세계 시민의 필수 교양 작가를 꼽는다면?

프랑스 출신 아티스트 JR(1983~)은 올해로 40대에 들어선 젊은 아티스트로서는 드물게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다. 작품이 좋아 사랑받는 작가는 많지만, 존경까지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2011년, 28세의 JR이 공개 강연 프로그램인 TED 프라이즈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그 가능성이 드러났다. 시각적으로는 안젤름 키퍼나 아놀드 레픽 등의 작업처럼 추상 표현주의가 쉽게 다가오지만, 작품 내용을 알고 나면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것은 단연 JR의 작업이다. 그의 작업은 추상적이나 간접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직접' 다루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작가라 할지라도, 미술 평론가들의 펜촉을 날카롭게 세우게 하는데, JR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들의 붓이 부드러워진다. 알면 알수록 멋지게 예술을 한다는 감탄이 드는 작가다. 진실된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고 싶은 이들의 필수 교양 수업이 있다면, JR은 0순위로 삼아도 모자람이 없다. 전 세계를 캔버스 삼아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JR의 대규모 전시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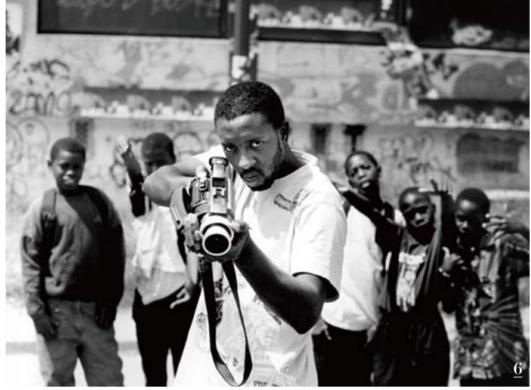


JR(제이알)은 1983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장 르네(Jean René)로 'JR'은 이름 이니셜에서 가져왔다. 그의 아버지는 동유럽, 어머니는 튀니지 출신의 프랑스 이민자다. 그의 부모는 우리에게 '벼룩시장'이라고 알려진 클리낭쿠르(Clignancourt) 시장에서 노점을 했기에, JR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가 성장한 파리 북부나 생-드니 지역은 지안이 불안해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이 소수자, 이민자 등에 대한 JR 작품 세계의 심성적 바탕이 된다. JR은 처음에는 다른 그래픽리스트처럼 래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공공장소 혹은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나 기타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삼성 카메라를 주었고, 이 카메라를 사용해 사진을 찍어 프린트한 것을 벽에 붙이며 다른 그래픽리스트들과 차별화된다. 뱅크시(Banksy, 1974~)가 주변 환경을 이용해 풍자적 장면을 독특한 스틸 작품으로 만들어 화이트 페이스팅(wheat pasting, 밀가루 접착제를 사용해 종이 기반의 작품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행위)이나 예술 형식을 한다면, JR은 종종 28mm 광각렌즈로 피사체의 얼굴(혹은 눈, 코, 등 일부) 혹은 인물 전체

를 주로 모노크롬 포토(monochrome photography)로 표현하는 화이트 페이스팅을 한다. JR은 건축 도면을 인쇄하는 프린터를 주로 사용하는데, 폭 90cm의 출력물로 건물에 맞춰 사이즈를 조정한다. 그의 실내 전시도 훌륭하지만, 실외에서 건물과 어우러지는 작업은 더욱 인상적이다. 2009년, 파리의 센 강둑과 다리에 거대한 눈이 설치됐을 때, 루브르와 에펠탑을 배경으로 '아나모포시스' 작업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친밀하게 그의 작업과 교류하며 즐겼다.

#JR: 크로나클스

JR을 심도 있게 접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전 <JR: CHRONICLES>가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진행 중이다(8월 6일까지). 이 전시는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2019), 독일 뮌헨 쿤스트할레(2022~2023)를 거쳐 한국에 왔다. 사진, 영상, 프로젝트를 기록한 아카이브 등 1백4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JR의 작품은 하나하나 감동적이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감동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기에 몇몇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겠다.



'세대의 초상, 브라키위, 래지 리'(2004)

이 작품에서 JR은 그의 친구이자 영화감독인 래지 리(Ladj Ly)를 찍고 있다. 래지 리는 카메라를 총처럼 가누고 있다. 사실 카메라와 총은 여러모로 공통점이 있다. 'photo shoot(사진 촬영)'의 shoot은 '쏘다'라는 의미다. 카메라나 총은 호흡을 가다듬고 진동하며, 초점을 맞추고,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다. 무엇보다 잘못된 자각은 커다란 피해를 야기한다. 이 점을 잘 아는 래지 리는 위아미와 같은 포즈를 취했다. 이는 동네 형들이 사진을 찍으니, 래지 리 뒤편으로 동네 아이들 몇 명이 함께 사진에 찍히고 싶어, 갓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 뒤로 JR의 작품들이 흐릿하게 보인다. 이처럼 3중으로 중첩된 의미(사진과 총, 아이들의 순간함, JR의 작품 등을 지니고 있는 작업이지만, 사람들은 래지 리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사진 속 오브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총을 가누고 있다고 여긴다)래지 리는 이 사진을 찍은 지 15년 뒤 이민자 문제를 다룬 <레미제라블>(2019)이라는 장편 영화에 데뷔적으로 칸 영화제에서 상사위 원상을 거머쥐었다. 당시 대상 작품은 불중호 감독의 <7생중>이었다. 이 사진이 예언적인 역할이라도 한 듯, 이듬해인 2005년 파리 쇼쇼 사태가 발생한다.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10대 무슬림 소년 2명이 감전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때 한 매체가 JR에게 쇼쇼 사태를 일으키는 청년들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한다. 친구와 같은 그들을 부정적 이미지로 다룰 것을 우려해 거절한다. 이때 그는 자신의 작품이 나아가길 방향을 확신한다. 미어나 뉴스가 소외자와 소수자의 부정적인 모습을 주로 보여준다면, 그는 반대로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의 작품이 낙관적이고 차치해 긍정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는 작가의 미학적 포지션이다. 모든 작가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쪽이든 '예술적'이고 '기술적'이어야, 비판적이며, 송고증을 지니면 된다. 더욱이 '적극적인 긍정성'은 가변물 등 부정적 비평성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다. 다음에 소개할 프로젝트가 그러하다.

'Face 2 Face'(2006~2007)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거의 실투 없이 이어진다. 2006년, JR은 그의 친구 마르코(Marco)와 함께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려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한다. 그리고 Face 2 Face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팔레스타인 택시 기사를 만나 프로젝트를 설명하자, 그는 대단히 친절하게 사진을 찍고 벽에 붙여도 좋다고 했다. "이스라엘 택시 기사는 정말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오심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스라엘 택시 기사도 팔레스타인 기사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양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JR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변호사 등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사진을 크게 인쇄해 벽에 붙였다. 직업이 동일한 사람 2명씩 짝지어진 작업을 보며 사람들은 묻는다. "이들이 누구냐?"고. 이에 JR이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데 누가?"고 되물으면 모두 입을 다문다. 결국 그들은 그토록 다르다고 느꼈지만, 실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사실 이 작업은 일촉즉발의 위험성을 품고 있었으나, 그만큼 보람이 컸다. 분쟁

1 전 세계를 캔버스 삼아 혁신적인 공공 미술의 전행이 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JR의 대규모 개인전(서울 롯데뮤지엄에서 지난 5월 3일)가 열렸다. 뉴욕(미국) 브루클린 미술관, 뮌헨(독일) 쿤스트할레를 거쳐 서울에 상륙한 순회전이다. Photo by 고성연
2 현재 서울을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JR 개인전 <JR: CHRONICLES> 전시 포스터. 3 늘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1963년생 아티스트 JR의 초상(portrait), 2019. ©JR-ART.NET 4 지난 2019년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성행리에 열렸던 JR 전시 모습. Photo by Sim Eunlog
5 JR: CHRONICLES, Anamorphosis, Seoul, 2023, LOTTE Museum of Art, Photo by Leejeonghun 6 '세대의 초상, 브라키위-래지 리'(Generation, Braquage, Ladj Ly)(2004), Wheat-pasted posters © JR-ART.NET 7 Face 2 Face(2006~2007) 프로젝트. JR: CHRONICLES, LOTTE Museum of Art, 2023, Photo by Leejeonghun 8 롯데뮤지엄 JR 전시장 벽에 새겨진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프로젝트에 관한 문구. 전시장 한쪽 벽에는 세계 전도가 있는데, 국의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에 참여한 나라들은 빨간 깃발이 꽂혀 있다. 일본과 중국에는 빨간 깃발 여러 개가, 한국에는 하나 꽂혀 있다. 9 Inside Out(2013), Times Square, New York City, Installation image, Wheat-pasted posters on buildings ©JR-ART.NET * 2, 3, 5~7, 9 이미지 제공: 롯데뮤지엄



문이다. 당신은 묻는다. 아이들은 왜 걸거리에 엄청나게 큰 사진을 붙여놓은 걸까? 시위라도 하는 걸까? 사실 방금 언급한 것은 2016년 10월, 이우고등학교(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소재)에서 실현한 'AM I OK?'라는 프로젝트로, JR의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백 15명의 초상을 야외에서 JR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선보인 전시다. 고교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아스팔트 위에서도 전시가 펼쳐졌고, 수원 광고 호수공원에 이어 허슬 등 이우고등학교 학생 6명은 서울 망원역 역사 내에서도 'AM I OK?' 프로젝트를 연장 전시했다. 사진을 통해 한국 고등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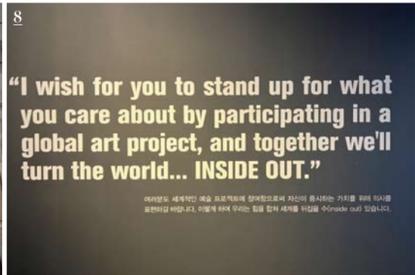
"나는 괜찮은가?". 한국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기도 전에 "부모님,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묻는다. 나 자신을 말하는 걸 주저하게 되고, 당당히 말하면 가족, 친구들이 실망할까 두렵다. 늘 이렇게 타인의 사진을 먼저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을 할 틈도 없이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잠시라도 쉬면 경쟁에서 밀려나고, 대학에 못 가고, 그러면 취업하기도 힘든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힘들어한다.

"왜 소리치지 않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학생들이 소리치지 않는다. "무엇이 학생들이 소리치는 것을 막고 있는가?", "왜 그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를 주저하게 될까?"(이우고등학교홍학생회, 허슬 작성, 2016. 10. 22 페이지 106 참조) 그리고 주저하게 만드는 게 뭘까? 그러나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질 얼른 다시 교과서를 본다.

이 학생들이 이제는 관찰은 지문도 싫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들이니 모두 잘 성장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JR은 큐레이터가 바로 이우고등학교 학생이나 가문의 권력자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 전사를 준비하면서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됐을 것이다. <JR: Chronicles>가 순회전이라는 해도 'AM I OK?' 프로젝트가 1점이라도 전시했다면, 최소한 언급이 되었던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역시 한국적인 상황이나 훨씬 더 거기에 다가오기도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제2, 3의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들은 다양하고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고, 국제적인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가장 깊은 관심사와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JR에게 예술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면 그는 "벽에 걸린 자신들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잠시 전쟁을 잊는 것이 예술"이라고 답한다. 이렇게 JR은 예술을 통해 조금씩 실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선입견과 관점도 바꾸고 있다.

글 심은록(Sim Eunlog Meta Lab 연구원) Edited by 고성연





WEKINO WITH 한국 제품 디자이너들, 글로벌을 향하다

지난 6월 초 리빙 브랜드 위키노(Wekino) 서울 매장에서 가구와 소품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이뿐만 아니라 한국 디자이너들의 창조적 영감이 녹아든 전시가 열렸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유대를 쌓아온 위키노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위키노 워드(WEKINO WITH)의 첫 발걸음을 알리는 <Now We Are>라는 전시였다. 6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이 전시에 참여한 6팀은 우 리네 정체성이 갖는 공예 유산, 대도시의 현대성과 활기를 조화롭게 반영하고자 위키노의 디자인 디렉팅을 맡아온 스톡홀름의 노트 디자인 스튜디오가 앞장섰다고, 이미 세계 디자인계에서 활약하는 이광호(책이나 오브제를 놓을 때 칸막이를 놓을 때 칸막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선반(Pirouette Shelf), 스튜디오 차차조각보를 감싼 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비정형적인 거울로 예술품처럼 걸어놓기에도 좋은 'Chroma Mirror'), 구오 듀오(구불구불한 곡선의 앙증맞은 디자인이 돋보이는 'Reel Hanger'와 'Book Worm')를 비롯해 스튜디오 워드(Oddly Rug), 스튜디오 PES(다이닝 চে어와 암체어로 구성된 'Stout Chair' 컬렉션, 그리고 위키노 스튜디오 자체의 가구(구름을 닮은 Willow Lounge Chair와 코 듀로이 완간의 모듈러 소파 'Deed Sofa') 등으로 이뤄진 전시는 위키노 워드라는 브랜드의 가능성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시 도였다(현재 전시는 끝나고 다시 일반 소품 형태로 돌아왔지만, 이 컬렉션 일부는 글로벌 무대를 겨냥한 제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41 홈페이지 www.wekino.co.kr 문의 02-1899-6190

1 서울 창동동에 있는 위키노(Wekino) 매장에서 펼쳐진 <Now We Are> 전시 모습. 위키노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위키노 워드(WEKINO WITH)의 첫걸음을 알리는 전시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왼쪽 선반은 이광호 작가의 'Pirouette Shelf', 오른쪽 의자는 위키노 스튜디오의 'Willow Lounge Chair'. 2 구오 듀오의 'Reel Hanger'. * 이미지 제공, 위키노

공간의 가능성

팬데믹이 강제했던 '집콕'은 돌아보면 '공간'에 대한 관심과 갈망을 대거 불렀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그 가능성을 두루 살펴보는 길을 터줬다. 특히 '나의 공간', '집의 재해석'을 향한 집중과 열망으로 리빙업계는 전화위복을 넘어 아주 독특하고 수혜를 입은 생태계 중 하나이기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의 취향도 더 다채롭고 까다로워졌다. 그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인테리어 소품의 브랜드링이나 브랜드 경험도 더욱 다양한 양태를 띠어가는 상황에서, 각양각색의 디자인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공간의 시도 역시 흥미롭다. 도시 풍경에 한 줄 개성을 보태주는 공간 사색(四色)!



&Tradition 플래그십 공간 덴마크 리빙 브랜드 소품과 상큼한 디자인 카페

조명 애호가라면 디자인만 보고도 알아챌 브랜드 &트래디션(&Tradition). 덴마크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트래디션은 플라워팟(Flowerpot) 조명 시리즈로 꽤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만 아니라 이 브랜드의 다양한 소품과 가구 디자인을 아우르는 플래그십 매장이 생겼다는 소식을 반가워할 이들이 꽤 있을 듯하다. 특히 서울 가로수 길에 자리한 이 매장의 1층은 &트래디션 소품과 가구로 둘러싸인 카페 '아키 커피(Arki Coffee)'를 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트래디션의 공식 딜러인 아키스토어(ArkiStore)의 이름을 딴 카페다. 2층에는 &트래디션의 인테리어 철학을 두루 살피볼 수 있는 메인 매장이 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드벨리우스(Develius) 소파와 각종 리운지 체어, 그리고 하이메 아몬의 폼아키미(Formakami) 펜던트 조명 등이 자리한다. 또 2층의 하이라이트인 플라워팟 리운지는 베르너 핀톤의 색채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공간으로, 몰입감 있게 조명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18길 10 문의 02-6365-5162

1 덴마크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트래디션(&Tradition)의 플래그십 매장 건물 1층에 자리한 카페 'Arki Coffee'. 장안의 벽화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ZION, 와의 협업 작품. 2 1층의 전시 공간. 베르너 핀톤이 처음 사용한 블랙 & 화이트로 이뤄진 웨이브 패턴의 '플라워팟(Flowerpot) 펜던트 조명'이 가운데 걸려 있다. * 이미지 제공, 아키스토어



#마이알레, 이탈리아 정원 감성을 들여오다 지속 가능성에 역점 둔 EMU 브랜드 국내 전격 소개

자연에 중심으로 한 감성의 편집력이 돋보이는 마이알레가 이탈리아 브랜드 EMU를 국내에 들여와 눈길을 끈다. EMU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국적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손잡고 이웃도여 부문에 디자인을 도입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로, 70년 넘는 역사를 자고 있다. 특히 유쾌하고 정감 있는 이탈리아식 정원 감성이 깃든 이웃도여 가구 컬렉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100% 이탈리아 현지 생산을 고집한다. 한국에서는 마이알레가 총판 역할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라이프스타일의 다변화로 이웃도여 가구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EMU의 대표 모델로는 전 세계적으로 2백만 개 이상 팔렸다는 스테디 셀러 Ronda를 비롯해 이를 재해석해 지속 가능성과 강인함을 다한 Ronda X, 1970년대의 역사적인 모델 RIO를 바탕으로 한 RIO R50, 다이아몬드 패턴의 기하학적 디자인이 인상적인 Re-Trouvé, 직조 스틸 프레임의 경쾌하고 우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Heaven' 등이 있다. 마이알레는 지난해 중순 아름다운 정원으로 입소문 난 마이알레 파천 빌리지의 잘고 청량한 녹을 속에서 브랜드 런칭 쇼케이스를 펼쳤고, 한차례 예약제로 소품을 꾸리고 있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삼부골3로 17 문의 010-8426-5450

1 마이알레가 국내에 독점적으로 들여온 이탈리아 브랜드 EMU의 이웃도여 가구 '헤븐(Heaven)'. EMU는 이탈리아 정원 감성이 깃든 이웃도여 가구 컬렉션으로 역사 깊은 브랜드다. 2 덴마크 Ronda' 의자. 전 세계적으로 2백만 개 넘게 판매된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 이미지 제공, 마이알레

So Cool

올여름 룩은 브레이슬릿으로 결정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행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운데 자스트 영 글루 브레이슬릿** 뭇을 모티브로 브레이슬릿의 형태를 완성해 모던하면서도 아이코닉한 감성을 부여하는 다이아몬드 세팅 옐로 골드 소재의 브랜드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7백만 원대. 문의 1877-4326 **반달리프 아펠 베를리 골드 비즈 브레이슬릿 라지 모델** 매종의 시그니처인 18K 옐로 골드 비즈를 경쾌하게 풀어내 클래식 하면서도 우아함과 세련미를 더한다. 6백90만 원. 문의 1877-4128 **볼리 비비트윈 브레이슬릿** 로마의 장엄한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헤쳐 세팅한 밴들이 붙어있고 쿨한 매력을 선사한다. 2천2백50만 원. 문의 02-2066-0170 **타미나 타미나 락 하프 파페 다이아몬드 밴드** 연희와 포용의 함에서 영감을 받은 락(lock) 디자인이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더해주는 밴들로, 18K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를 믹스해 4백만 원대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하프 파페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우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포엠티비트 포엠티비트 투가터 브레이슬릿** 2개의 밴드가 가운데에서 만나 연결되는 모티브로 18K 로즈 플래티넘 화이트 골드에 총 0.99카럿, 1백2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매력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42 **다이아나 벨 에포크 브레이슬릿** 18K 핑크 골드 소재로 이뤄진 밴드에 상가 모티브를 재해하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파헤쳐 세팅해 착한 임팩트 있는 룩 연출을 돕는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부비론 리브로 글래시 L 브레이슬릿** 장쾌의 미학과 강렬함이 조화를 이루는 단단한 원형의 모던한 디자인에 프랑스어로 '4'를 의미하는 '쿼트'라는 제품명이 걸맞게 각각 옐로 골드,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브라운 PVD로 이루어진 4개 층이 특별한 개성을 부여한다. 4천만 원대. 문의 02-3467-8334 **에더리 상정원**



Astier de Villatte <휴고 기네스>展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시나리오 작가의 편화전

'서울에 옮겨놓은 파리의 공간'이라는 수식어를 절로 부르는 아스티에 드 빌라트(Astier de Villatte) 서울 플래그십 건물. 이태원 한복판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에 들어선 이 매력적인 복합 공간에서는 샵 룩을 비롯해 향수, 책, 가구 등 빈티지 감성을 물씬 풍기는 오브제와 가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루프톱 카페에서 이태원의 이따저한 건물 숲을 바라보는 도시 풍경 전망이 일품이다. 1996년 이 독창적인 감성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든 인물인 디자이너 이반 페리콜리(Ivan Pericoli)와 배우 아스티에 드 빌라트(Benoit Astier de Villatte), 2년 전 개점 당시 서울 플래그십 매장에서 배우이와 이반,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그린 드로잉 작품 전시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지난 6월 중순 두 번째 전시가 막을 올렸다. 이번에는 웨스 앤더슨 감독과 함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시나리오를 집필한 작가이자 화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휴고 기네스(Hugo Guinness)가 주인공. 뉴욕을 주 무대로 일하는 그의 편화 작품 5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 강아지, 고양이 같은 동물과 식물, 자동차 등 소소한 일상의 소재를 담백하게 담아냈다. 역시 빈티지 감성이 물씬난다. 전시는 8월 31일까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49길 13 문의 0507-1328-7098

1 아스티에 드 빌라트 서울 플래그십 매장에서 진행 중인 휴고 기네스(Hugo Guinness) 편화전 전시 풍경. 창밖으로 이태원 건물이 보인다. 2 웨스 앤더슨 감독과 함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시나리오를 집필한 작가이자 화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휴고 기네스 이반 시나리오 일러스트 작품을 담은 편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였다. * 1, 2 Photo by 고성원



절대적 우아함을 품은 태양빛 컬렉션

귀족의 욕구를 형상화한 베누아, 꽃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얻은 저스트 앵글루 컬렉션에 이어 커피 원두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선보였다.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찾아내는 까르띠에의 무한한 크리에이션은 현재진행형이다.

Alay Prager © Cartier



Jean Braun © Cartier

1950년대 분위기에 모던한 느낌을 더해 우아한 그레이스 켈리를 연상시키는 그랑 드 카페 컬렉션을 표현한 엘 패닝. 2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로 보디 움직임에 작은 일광이들이 경쾌하게 반응한다. 3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링. 4 옐로와 화이트 골드,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아름다운 그랑 드 카페 컬렉션의 브레이슬릿과 링. 5 1956년, 파우스토 피체디(Fausto Piccidi)가 촬영한 모노-코 대공비 그레이스 켈리의 사진. 1955년 까르띠에 파리에서 선보인 커피 원두 모티브의 네크리스와 0 아님을 착용했다.

2



© Cartier

3

커피 원두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작은 알갱이가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 고소한 향기, 그리고 여유로운 커피 한잔일 터. 까르띠에는 이런 감성에 프랑스 리비에라(Riviera)의 매력과 그레이스 켈리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접목해 옐로 골드가 매력적인 새로운 컬렉션, 그랑 드 카페(GRAIN DE CAFÉ)를 론칭했다. 까르띠에 아카이브에서는 이 컬렉션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는데, 1938년 전설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잔느 투상이 처음 선보였고, 1950년 까르띠에의 아이코닉한 주얼리 중 하나가 되었으며, 모나코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그레이스 켈리는 레니에 3세 대공과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 이 컬렉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당시에는 골드 또는 산호 등 고귀한 소재를 깎아내 만들었는데, 때로는 다이아몬드나 컬러 스톤을 스티드 세팅하기도 했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 그랑 드 카페는 메종의 DNA에 현대적



© Fausto Piccidi - Archives du Palais de Monaco - IMA

3

인 감성을 불어넣었다. 지중해의 햇살을 흠뻑 받을 수 있고, 자연환경과 컬러가 아름다워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온 프랑스 리비에라. 이곳의 태양을 떠올리게 하는 그랑 드 카페 컬렉션의 골드와 반짝임은 착용하는 사람을 따뜻하고 여유로운 금빛으로 물들인다. 여기에 다이아몬드와 루블라이트 스티드를 세팅한 모넬가 모티브 작은 움직임에도 가볍고도 경쾌하게 흔들리며, 화이트 골드에 세팅한 다이아몬드는 보며 볼수록 매력적이다. 펜던트 네크리스, 네크리스, 이어링, 브레이슬릿, 브로치 등으로 선보이는 그랑 드 카페 컬렉션은 감각적인 곡선미, 매혹적인 컬러, 그리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반짝이는 무리의 아름다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이아몬드 및 오피스이드인 또는 루블라이트를 세팅한 모티브가 불규칙하고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지는데, 특히 네크리스는 피부 위에서 빛이 춤추는 듯한 반짝임이 극대화되어 매우 관능적이다. 두 부분으로 이뤄진 빈그레인, 그리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립한 섬세함이 감탄을 자아낸다. 한 부분은 곡선 형태를, 또 다른 부

분은 아치 형태를 띠며,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하거나 고드롱(동근 주름 장식)으로 변화를 줬다. 주얼리 & 워치메이킹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리-로르 세레드(Marie-Laure Céréde)는 “그랑 드 카페는 빛, 피닝, 볼륨감을 활용해 새로운 고귀함을 창출했습니다. 그 결과 감성 충만한 다양한 컬렉션이 탄생했는데, 메종의 창의적 자유로움을 상징하며 자연 그대로를 담고 재해석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말했다. 까르띠에에는 과거 이 컬렉션을 사랑했던 그레이스 켈리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미국 감독 알렉스 프레이저에게 트레일 영상을 의뢰했다. 그 결과 까르띠에의 새로운 엠베서더인 엘 패닝은 45초 분량의 영상에서 1950년대 분위기에 모던한 느낌을 더해 프랑스 리비에라, 영화 황금기, 우아한 그레이스 켈리 등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그랑 드 카페 캠페인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우연히 만난 신비로운 여성을 따라가는 여정을 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여성은 현재의 여성과 같은 인물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시간이 정지하는 묘한 느낌으로 끝난다. 까르띠에의 절대적 우아함을 품은 그랑 드 카페 컬렉션은 까르띠에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장민우](#)



Alex Prager © Cartier

경쾌하고 감각적인 움직임

평범한 것을 고귀한 것으로 변모시켜 완성한 컬렉션. 커피 원두에서 영감을 받아 절대적 우아함을 품은 태양빛 컬렉션, 그랑 드 카페의 다양한 주얼리를 소개한다.



2

© Cartier

3

© Cartier

1-3 링크 골드에 움직임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와 링. 4-6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레이슬릿과 링. 7, 8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와 루빅스라이트 스톤을 장식해 화려함을 더한 링. 9-12 옐로골드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팬던트 네크리스와 링, 그리고 이어링.



4

Joan Braun © Cartier



5

© Car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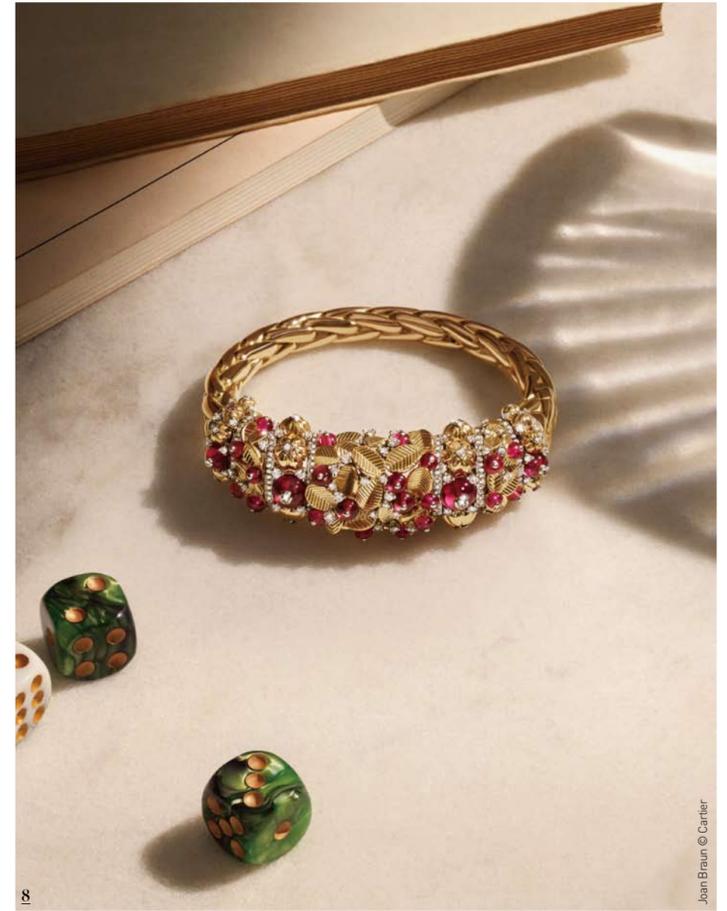
6

© Car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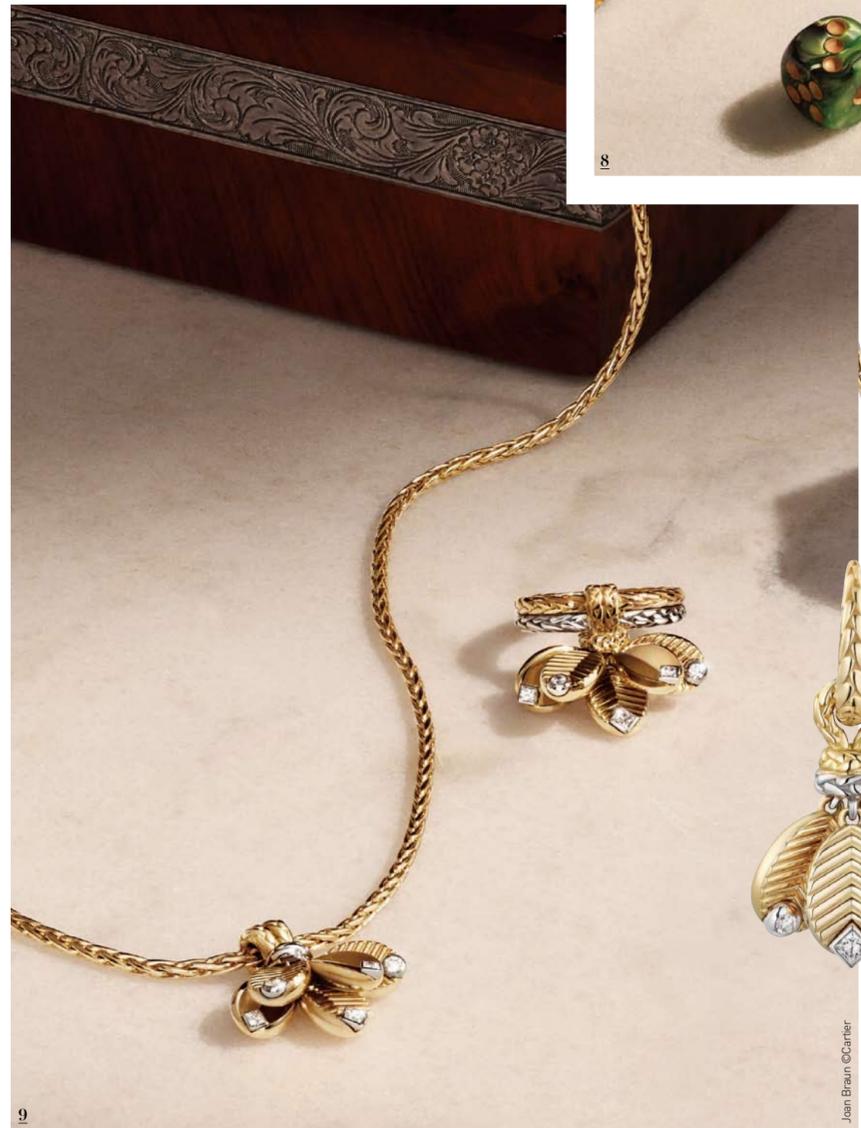
7

Joan Braun © Cartier



8

Joan Braun © Cartier



9

Joan Braun © Cartier



10

© Cartier

© Cartier

12

11

© Cartier

플라이아이드 소재의 블루 스트라이프 스웬 슈트
 가격 미정 **클로디 파에로**, 18K 로즈 골드에 하프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글램한 느낌을 부여한 티파니 하드웨어 링크
 이어링,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링크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링크를 채워 특별한 화려함을 부각한 티파니
 하드웨어 다이아몬드 파베 그레듀에이티드 링크 네크리스,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를 믹스하고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락 하프 파베 다이아몬드
 밴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한쪽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나머지 한쪽은 티루아즈로 장식한 티파니 T 와이어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티파니 락 풀 파베 다이아몬드
 밴글, 18K 로즈 골드 소재에 한쪽에는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나머지 한쪽은 머디오브릴로 장식한 티파니
 T 와이어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shine on me

올여름을 더욱 뜨겁고 풍요롭게 해줄 맞춤 하이 쥘리리 룩.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블루 네이비 컬러에 화이트 라인링을 더한 스웬슈트 가격
 미정 **로피아나**,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57캐럿의
 3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별 모티브가
 인상적인 코메트 링, 숫자 5 모티브를 형상화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0.25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하고 총 0.27캐럿의 1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이터널 N5 링, 핏팅 모티브의 18K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동그란 핏팅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개를 더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38캐럿의 24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매치하고 0.01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개로 완성한 이터널 N5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1.96캐럿의 4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0.41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개와 0.47캐럿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 1개로 완성한 드롭 스타일의 이터널 N5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소재의 별 형태에 총 0.45캐럿의
 12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부여한
 코메트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사샤 화인 주얼리**.

저지 소재의 트리옴프 로고 디테일을 기미한 스웬슈트 톱
 가격 미장 **셀린느 by 에디슬리언**,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4.467캐럿의 64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드롭형 다이망트 컬렉션
 이어링 5천7백56만원, 두 겹의 팔링올로 디자인한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3.497캐럿의 42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부드러운 우아함을 자랑하는 다이망트 컬렉션 네크리스
 4천9백68만원, 두 줄로 레이드한 하트 모티브에 총 2.337캐럿의
 27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망트
 컬렉션 링 3천899만원, 총 2.347캐럿의 28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벌형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맛을 선사하는 다이망트 컬렉션 링
 2천8백95만원 모두 **소피드**, 조절 가능한 알은 트윈스트 체인에
 다섯가지 세팅 보행 모티브로 장식하고 그 위에 총 2.677캐럿의
 80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세팅
 보행 5 모티브 브레이슬릿 3천만원대, 옐로 골드 소재의 트윈스트
 보행에 총 2.267캐럿의 62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드롭 모티브를 매치해 우아함을 부여한 세팅 보행
 멀티 모티브 브레이슬릿 2천만원대 모두 **부세론**.



미러쿠자 옐로 비카니 톱 가격 미장 **로코 피아니**,
 볼륨감 있는 실크오프로 감성적인 무드를 선사하는 클래식 드
 까르피에 링 4백300만원대, 18K 핑크 골드 소재에 후프 스타일로
 매력적인 팔링올을 선사하는 클래식 드 까르피에 후프 이어링
 1천2백만원대, 뱅글 형태로 착용 가능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피에 브레이슬릿 1천4백만원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동물인 팬다가 팔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옐로
 골드 소재에 오닉스의 차보라이트 가닛 2개를 세팅한 팬더 드
 까르피에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옐로 골드 소재의 팬더
 모티브에 블랙 라카와 차보라이트 가닛 2개, 오닉스를 세팅하고
 한자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팬더 드 까르피에 네크리스, 옐로 골드의 빅 사이즈 팬더
 모티브에 차보라이트 가닛과 오닉스로 눈과 코를 표현한
 팬더 드 까르피에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장 **까르피에**.

블랙 컷아웃 울타레 스왐수트 392만원대 **셀프 포트레이트**, 유리한 곡선과가 몸보이는 18K 로즈 골드 밴드에 총 13,27개의 8백30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드롭 모티브를 더해 화려함을 부여한 이코나가 네크라스, 18K 로즈 골드의 체인 형태로 볼드한 감성을 다한 카네이션 링, 18K 로즈 골드 밴드에 총 2,9개의 파이프 가닛 3개를 더해 매력을 배가한 이코나가 링, 매듭 부분이 독특한 매력을 자아내는 18K 로즈 골드 밴드에 총 3,27개의 1백14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이코나가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포멀라노**.



테크니컬 패브릭 소재의 구아바 스크베 컬러 매듭 디테일 스왐수트 59만원 **로로 피아나**, 지중해의 청명한 바다와 해변이 옮기나는 조각들 등을 컬러 스톤으로 표현해 화려한 매력을 부여하는 벨리브 컬렉션 이어링으로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파인 컬러 스톤으로 완성한 벨리브 이어링 2천4백40만원, 옐로 골드 소재에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와 파인 컬러 스톤으로 배리어스한 벨리브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 소재에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와 다양한 컬러 스톤으로 완성한 벨리브 네크라스 모두 가격 미정,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컬러 스톤을 매치한 벨리브 펜던트 2천1백19만원 모두 **프레드**.



플라에스터 소재의 블랙 컬러 원 스퀘어 저지 스왐수트 24만8천원 **렉토**, 여성의 우아함과 로미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부채꼴 모티브의 다바스 드림 컬렉션으로, 패어 컷 에메랄드를 센터에 세팅하고 그 주변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 오픈워크 이어링 4천3백70만원, 패어 컷 에메랄드를 센터에 세팅하고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에메랄드를 줄 부분에 추가해 포인트를 더했으며,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해 화려함을 부각한 화이트 골드 소재 오픈워크 네크리스 6천1백90만원 모두 **불가리**.

콜로디 피에로 02-3479-6127
티파니 02-6250-8620
로로 피아나 02-6200-7799
사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chanel.com
셀린느 by 에디슬리먼 1577-8841
스파드 02-6905-3390
부채꼴 02-3277-0148
카르띠에 1877-4326
프레드 070-4732-0479
셀프 포트레이트 1588-0121
코엘리토 02-3143-9486
렉토 1522-7720
불가리 02-2056-0170
팬디 02-544-1925
쇼메 02-3442-3359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Zuri Diem (Jennifer Management)**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김찬민**
 어시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상정민**



엘라스티 소재의 로고 패턴이 글래머 연율을 돕는 핑크 컬러 스왐수트 90만원 **팬디**, 해니콤 모티브의 로즈 골드 소재 밴드에 0.17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개를 세팅해 포인트를 준 비 마이 러브 링 3백만원대, 해니콤 모티브의 로즈 골드 소재 밴드에 0.017캐럿 시크릿 다이아몬드 12개를 세팅한 비 마이 러브 링 2백만원대, 섬세하게 재현한 발집 형태의 로즈 골드 밴드 위에 총 4.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5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비 마이 러브 브리오슬릿 5천만원대, 미러 폴리스 처리한 발집 모티브로 입체감과 반짝임을 더한 로즈 골드 소재 비 마이 러브 후프 이어링 7백만원대, 미러 폴리스 처리한 다이아몬드 발집 모티브의 로즈 골드 밴드에 오픈워크 세공으로 총 1.347캐럿의 다이아몬드 11개를 세팅해 광채를 극대화한 비 마이 러브 링 1천만원대, 해니콤 모양의 로즈 골드 소재에 총 0.4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8개를 세팅해 반짝임을 더한 비 마이 러브 링 6백만원대, 로즈 골드 소재 해니콤 밴드에 총 0.21캐럿의 1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하프 피베 세팅해 은은한 매력을 부여한 비 마이 러브 링 3백만원대, 총 1.0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9개를 로즈 골드 소재의 메시 워문 실룩 올려 세팅해 화려한 광채를 뽐내주는 비 마이 러브 네크리스 8천만원대 모두 **쇼메**.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트위드 소재가 샤넬의 하이 주얼리로
 구현되어 또 하나의 레전드로 등극했다. 샤넬 워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파트리스 레게루(Patrice Leguéreau)는 2020년,
 트위드 직조의 다채로움에 영감을 받아 트위드를 구급속 패브릭으로
 변신시킨 '트weed 드 샤넬(Tweed de Chanel)'을 통해 샤넬 하이
 주얼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다양한 보석들이 섬세한 문장을
 통해 세밀하게 '수놓아진' 듯한 이 놀라운 컬렉션은 상상을 뛰어넘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유연한
 구조로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네트리스, 핀드트, 브로치, 이어링
 등으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밍 디자인도 선보여 하이 주얼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독창성까지 보여준다. 2023년 파트리스 레게루는 다시
 한번 트위드의 마법에 사로잡힐 이 경이로운 컬렉션을 런던의 특별한 행사에서 직접 만났다.
 아심 찬 두 번째 컬렉션을 선보였다.

Tribute to Tweed

또 하나의 레전드로 기억될 샤넬의 '트weed 드 샤넬(Tweed de Chanel)'.
 샤넬의 상징이자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했던 소재인 트위드가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거듭 태어났다.
 보는 순간 트위드의 마법에 사로잡힐 이 경이로운 컬렉션을 런던의 특별한 행사에서 직접 만났다.





1 트위드 드 샤넬(Tweed de Chanel) 컬렉션의 대표 작품인 트위드 꾸뛰르 네크리스.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보석들이 마치 패브릭을 엮듯이 섬세하게 연결되어 눈부신 화려함과 놀라운 유연함을 자랑한다. 2-5 트위드 꾸뛰르 네크리스의 메이킹 과정. 모든 과정이 작품을 영동해 하나 하나 세밀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완성되고 아름다움을 더한다.



지난 6월 런던. 바람과 햇살이 스치고, 시냇물이 흐르며, 이끼와 식물로 가득한 완만한 언덕이 있는 공간. 폭풍의 땅 스코틀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그곳에는 가브리엘 샤넬이 현사하는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밤이면 별이 가득한 벨벳 같은 칠후으로 뒤덮이는 스코틀랜드의 웅장하고도 미스터리스한 자연은 가브리엘 샤넬에게 완전한 동경의 세계였다. 그리고 이 동경의 땅을 섬세하게 재현한 곳에서 샤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열렸다. 샤넬이 이런 풍경에 빠지게 된 것은 웨스트민스터 공작과 연애를 하며 영국 귀족의 삶을 체험한 1920년대다. 샤넬 여사는 연인의 트위드 재킷을 빌려 자신의 컬렉션을 만들었다. 남성복에 사용하던 트위드를 최초로 여성복에 적용한 것. 스코틀랜드인들이 셀 수 없이 다양한 패턴으로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편안한 울 패브릭인 트위드는 현재의 기후에 맞서기 위한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트위드의 이름은 스코티시 보더스의 트위드강(River Tweed)에서 따온 것이다. 가브리엘 샤넬은 트위드를 자신만의 것으로 재해석해,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여성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했다. 몸을 감싸는 부드러움, 빗질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거친 듯 불규칙적인 조직이 주는 매력. 그렇게 샤넬 스타일 언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탄생했다. 그리고 2020년 트위드는 놀랍게도 샤넬 하이 주얼리의 세계로 들어왔다. 트위드에 한정된 45개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구성된 첫 컬렉션은 분절을 능숙하게 활용해 트위드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주얼리로 재현했다. 샤넬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패트리스 레게로(Patrice Leguereau)는 트위드 직조의 다채로움에서 영감을 받아 트위드를 귀금속 패브릭으로 변신시킨 '트위드 드 샤넬'을 통해 샤넬 하이 주얼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작업을 눈앞의 현실로 이루어낸 것이다. 2023년 패트리스 레게로는 다시 한번 트위드의 마법에 이끌려 64개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로 구성된 아심 찬 두 번째 컬렉션을 선보인다. 정교한 세공, 자수, 프린지, 오픈워크 레이스, 단색 또는 다색 화법, 풍부한 디테일로 재현한 패브릭의 직조, 황홀한 움직임에 통해 트위드의 정수인 고급스러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준다. 이번 컬렉션은 다섯 가지 새로운 트위드 주얼리 직조를 가브리엘 샤넬이 좋아했던 다섯 가지 컬러와 다섯 가지 아이콘으로 보여준다. 화이트 리본, 핑크 까멜리아, 푸른 배경의 코메트, 노란빛 태양, 붉게 타오르는 사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샤넬의 주얼리 공방에서는 금사와 백금사 소재의 작은 링, 분절을 사용해 모든 작품에 유연함과 편안함을 부여해 보석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하늘하늘하면서도 질감이 느껴지는 트위드 직조에 프린지를 달고, 입체적이 고 대칭을 이루는 진정한 '보석 패브릭'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았다. 골드, 진주, 보석의 교차, 다양한 크기의 스톤, 오픈워크로 트위드의 폭신하면서도 질감이 살아 있는 두께감을 재현했다. 뛰어난 퀄리티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의 숙련된 솜씨와 노하우, 패션을 초월한 디자인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자유를 선사한다. 이러한 자유 덕분에 샤넬은 2개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통해 트위드에 대한 찬가를 쓰고 트위드를 고귀한 소재로 선언할 수 있었다. "내 꿈은 보석으로 세팅한 트위드를 만드는 거였어요"라던 샤넬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패트리스 레게로의 꿈은 완벽히 이루어진 듯하다. 또 하나의 전설이 될 샤넬의 '트위드 드 샤넬'. 이제 그 경이로움과 황홀함에 찬사를 보낼 일만 남았다.

2023년 컬렉션의 핵심 작품은 트위드 로열(TWEED ROYAL). 체인으로 트라킹을 장식한 복잡한 세공의 플라스틱 네크리스로 옐로 골드 직조에 다이아몬드와 37개의 아름다운 루비가 세팅되어 있다. 중앙의 사자 마리는 플라스틱 루에 네크리스로 착용하거나 브로치로도 착용할 수 있다. 네크리스를 장식하는 카타린 10, 17개의 페어컷 다이아몬드 분할 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샤넬 하이 주얼리의 노하우, 독창성,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6 런던의 대영박물관에서 열린 샤넬 하이 주얼리 파티에서 샤넬의 액세서리인 카타린 10, 17의 네크리스를 착용한 모습. 7 샤넬 여사가 사랑했던 스코틀랜드의 풍경을 재현한 런던 전시장 입구. 8 스코틀랜드의 자연 풍경과 하이 주얼리가 조화를 이루었던 전시장 내부 모습.



great legacy of sky



전문 항공 워치메이커를 위한 여정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워치에 대한 풍부한 유산과 레티티지를 지니고 있는 워치메이커의 명가 브레게에서 지난 1950년대 초 출시한 항공 워치 타입 XX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 선보인다. 전문적인 조종사나 승무원에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높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항공 워치를 제작하는 것은 워치메이킹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실력을 갖춘 브랜드야 가능하다. 브레게는 명망 있고 널리 인정받는 워치메이커로서 항공 운항 분야를 위한 워치를 제작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20세기, 1910년 알베르트 산토스-뒤몽(Alberto Santos-Dumont)부터 1918년 프랑스에 주둔한 미국 비행사들, 루이 브레게(Louis Breguet) 항공 회사, 1920년대 대에 프랑스를 방문했던 일본 비행사 등과 같이 수많은 이들이 브레게 시계를 착용해왔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브레게에서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손목시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더불어 워치의 기능도 이전과 확연히 다르게 향상되었다. 항공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특정한 제약을 조예에 맞춘 특수한 제품으로 19리뉴의 항자성 실버 케이스를 갖춘 비행장 크로노미터, 스텔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단열 케이스, 온도 조절 장치, 조명을 갖춘 작은 24리뉴 가네 크로노미터, 사이터로미터 같은 제품이 다수 등장했다. 첨단 기술이 돋보이는 이들 타임피스는 모두 항공공과 1933년 창립된 프랑스 국영 항공사인 에어 프랑스(Air France)에 납품되었다. 1950년대 초부터는 항공기 조종석 계기판에 장착할 워치메이킹 장비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했고, 이후 30여 년간 브레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왔다. 가장 잘 알려진 타입 11·11/1·12 모델은 수십 개국에 판매되어 수많은 항공기의 조종석 계기판에 탑재되었는데, 그중에는 당시 최첨단 항공기였던 초음속 콩코드(Concorde)도 포함되어 있다.

본격적인 항공 워치, 타입 XX의 시작

1950년대 초, 당시 항공 산업 전용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했던 브레게는 프랑스 공군에서 가장 숫자를 적용한 블랙 다이얼, 아랑 핸즈, 기압 변화 및 가속 시에도 견고함을 유지하는 고품질 무브먼트, 회전 베젤, 플라티백 기능

워치메이킹의 장인, 브레게의 훌륭한 유산과 레티티지 속에서 완성한 유일무이한 항공 워치의 탄생.

같은 주요 요소 외에도 항공기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다양한 기술 사양을 충족하는 조종사용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프랑스 항공공은 이러한 사양을 갖춘 워치를 타입 XX라 명명한다. 여러 브랜드가 타입 XX 제작을 위해 견합한 끝에 계약을 따낸 몇 개의 브랜드 중 브레게가 있었으며, 이 계약을 따낸 브랜드에만 동일한 제품을 만든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계기로 브레게에서는 타입 XX의 균용 버전과 민간용 버전을 모두 제작할 수 있었다. 1952년 타입 XX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했고, 1953년 항공 기술 서비스(Service Technique de l'Aéronautique)에서 승무원이 시계를 남용하지 않게 했다. 1958년 비로스 브레게만의 항공 워치로서의 차별화된 디자인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1963년에는 보다 현대화된 13리뉴 무브먼트를 탑재해 항공 워치의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며 프랑스 공군에 이어 시험 비행 센터, 해군 항공대를 비롯한 수많은 민간 조종사의 주문이 이어졌다. 더불어 브레게 타입 XX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다. 모로코 공군 또한 1970년대 2세대 타입 XX의 고객이었으며, 그 후 프랑스 대통령, ENAC(프랑스 국립항공대학교, École Nationale de l'Aviation Civile), 국가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 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브레게의 타임피스를 찾았다. 그뿐 아니라 몬테카를로 랠리(Monte Carlo Rally), 피에르 알렉산드르(Pierre Alexandre) 같은 유명 드라이버들이 타입 XX를 착용해 스포츠 분야에서도 사랑받았다. 특히 피에르 알렉산드르가 착용한 시계는 현재 브레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설적인 항공 워치의 귀환

이렇게 항공 워치로서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기술력을 지닌 브레게 타입 XX가 새로 태어나 균용 버전인 타입 20 크로노그래프 2057과 민간용 버전인 타입 XX 크로노그래프 2067로 우리를 찾아온다. 먼저 균용 버전인 타입 20 크로노그래프 2057은 구체적으로 1955년부터 1958년까지 프랑스 공군에 공급되었던 1천백 파스의 타입 20에서 영감을 받았다. 로마숫자로 타입 XX라고 기재된 해군 항공대(Aéronautique Navale) 모델을 포함한 야타 모델과는 달리 이 버전이 숫자로 제품 이름인 타입 20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 42mm의 스텔 케이스는 과거 공군에 공급되었던 모델과 마찬가지로 인그레이빙 디테일 없이 흙이 파인 양방향 베젤을 장착했으며, 오라지블 모델의(pear) 모양을 반영한 크라운이 포인트. 블랙 다이얼을 대체해 모던한 디자인을 구현했고, 이 버전이 숫자와 베젤의 상각형 디테일, 아랑 차관한 민트 그린 컬러 핸즈를 다했다. 3시 방향에 위치한 30분 토타라이저는 9시 방향의 60초 토타라이저보다 더 큰 사이자로 완성했으며, 4시와 5시 사이에는 날짜창을 추가했다. 민간용 버전인 타입 XX는 1957년에 제작되어 개별 번호 2988을 부여받은 모델이 추후적으로 타입 20과 디자인이나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 면모를 보인다. 42mm 스텔 케이스에 좀 더 클래식한 코운을 채택하고 다스플레이의 경우 3시 방향에는 15분 토타라이저, 6시 방향에는 12시간 토타라이저, 9시 방향에는 러닝 세컨즈를 장착했다. 마찬가지로 블랙 다이얼을 사용했다 이라 바이숫자, 핸즈, 베젤의 상각형 디테일에는 아이보리 컬러의 아랑 코팅을 더해 좀 더 부드럽고 클래식한 느낌을 전달한다. 이 두 워치는 각각 균용 버전을 위



- 1 균용 버전인 브레게 타입 20 크로노그래프 2057, 지름 42mm 스텔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과 스트랩을 매치하고, 핸즈와 인덱스에는 아랑 차관한 민트 컬러를 적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2 사피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정교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 민간용으로 출시된 타입 XX 크로노그래프 2067, 플라티백, 날짜, 스몰 세컨즈, 15분 토타라이저 기능을 갖추었으며, 핸즈와 인덱스에는 아이보리 컬러의 아랑 코팅을 미루어준다.
- 4 항공 워치로서의 시작을 나타내는 브레게 타이거브 신.



editor's Pick

점점 뜨거워질 올여름, 편집부가 엄선한 뷰티템과 함께! photographed by kim sa yun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큐어 컬러 립스틱 320 디퍼이전트 코발 바르는 순간 크리미한 텍스처가 강렬한 컬러감을 선사한다. 동경인 피부에 잘 어울릴 듯한 쉘라 컬러가 시머 메이크업에 제격. 또 모이스처 락 콤플렉스를 함유해 컬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도 입술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3.5g 4만8천원대. 문의 02-6971-3212_by 에디터 윤자영

에르메스 퍼플렉스 스킨케어 아사르 이솜 세안은 무조건 바루로 가볍게 하는 편. 이 제품은 에르메스 향수의 향기가 그대로 들릴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 피부드러한 몸으로 일어나 은은한 향이 나는 비누로 세안을 하고 나면 밤새 생긴 욱은 각질은 물론 피로까지 썩 씻기는 기분. 연화제인 알리틴 성분은 피부를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가꿔주기까지. 3pc 1세트 10만2천원. 문의 02-310-5174_by 에디터 생정민

랑콤 레네르지 H.P.N 크림 주름, 잡티, 기미 등 노화 징후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데일리 인티에이지 크림. 끈적임 없이 깔끔하고 가벼운 크림을 찾았다면 적극 추천한다. 실감할 미무리감과 빠르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가벼운 텍스처에 반하게 될 듯. 에센스 사용 후 바르는데, 극건성인 에디터의 가장 큰 고민인 피부 속 말갱까지 해결해주는 느낌이라 든든하다. 50ml 16만5천원대, 50ml리퍼프 13만2천원대.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생정민

다카르트 데미스크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프로 피부가 한층 민감해지고 수분 부족에 시달리던 차에 간편한 스페셜 케어를 위한 마스크 팩을 찾았다 이 제품을 만났다. 수분에 대해서는 일기엔이 있는 다카르트와 맞물리고, 역시나 살랑사지 않았다. 수분 흡수력을 극대화하는 리포좀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이 손실되지 않게 막는 것은 물론, 피부 장벽까지 탄탄하게 지켜주는 보습, 냉각고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26g X 5ea 3만원. 문의 1544-5453_by 에디터 생정민

자이스 뷰티 아미노스타를 비디 밀크 샤워를 자주 하는 여름에 사용하기 딱 알맞은 리모탄 텍스처다. 비디미지 비로 피부에 스며들어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사용감으로 끈적임을 싫어하는 이에게 추천한다. 비디고 비로 물을 입어도 묻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무엇보다 향이 일품인데, 보디 제품을 바르는 내내 온몸을 감싸는 풍부한 장미 향이 힐링 그 자체다. 200ml 6만9천원대. 문의 080-801-9500_by 에디터 생정민

다움 뷰티 디올스 온 스키페이 크레뎀 #099 블랙 무브먼트 선행한 컬러가 눈매를 뚜렷해 보이도록 해주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아이라, 수리극화 추출물을 함유해 크리미한 텍스처가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하며, 볼링링 수 있는 틱을 내뿜어 자연스러운 인공이 가능하다. 1.2g 4만원대.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윤자영

라뷰르셋 비스 트림스 안콜라미 비디 스킨을 사용해 각질을 제거하는 스텔린 서부의 진흙 스킨 오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아랑색으로 하루 두 번씩 사용하게 되는 요즘, 아랑 사용에는 무릎, 팔꿈치, 발뒤꿈치에, 저녁 사용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했다. 1일 사용 시 피부가 확실히 보드랍고 촉촉해진 느낌이 들어 보드라운 피부 없었었다. 옷까지 가벼워지는 이 계절에 필수 뷰티템. 420g 6만3천원. 문의 644-4490_by 에디터 생정민

플로리아스 리지드스 트림스-웨티비 토타 리어 세럼 일곱 층의 여름에는 안티에이징 관리가 필수다. 모공 관리에 효과인 레티놀 유도체와 팻겔을 매끄럽게 가꾸주는 나이아신아미드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 탄력과 톤까지 알티 케어가 가능하다. 요즘 날씨에 잘 어울리는 산뜻한 제형도 마음에 든다. 30ml 7만3천원. 문의 1661-6656_by 에디터 생정민

산샤이아 베퍼 2023 코스모스 컬러센 리퍼 글로우 #스텔라 자연스러운 발색과 미세한 입자가 조화를 이뤄 피부에서 빛이 나는 듯한 느낌. 비디 제품인 리퍼 글로우는 가벼운 텍스처로 밀모지, 세굴 등 여러 부위에 바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 만족스럽다. 8g 1만3천원. 문의 070-4370-7511_by 에디터 생정민

발롱 리스토링 퍼펙션 피부의 속과 겉을 재구성해서 보송하게 마무리하는 선크림을 찾던 참에 만난 제품. 미세 펄 입자가 들어 있어 빛은 피부를 선사한다. 플라센 성분까지 함유해 피부 속이 차오르고 탄력있게 생김을 느낄 수 있었다. 가벼운 크림 제형으로 흡수력이 좋다는 것도 장점. 30ml 3만2천원. 문의 070-4352-5203_by 에디터 생정민

논픽션 시트러스 컬러센 온 라인스 오드 퍼플 시트러스를 주제로 선보이는 세 가지 향 중 온 라인스는 지중해 햇살 속 오렌지 나무의 과일 맛이 만들어내는 그늘 아래 줄기는 휴식을 연상시킨다. 강하고 열정적이며 단단한 향이 매력적. 오전 10시에 뿌려준다면 1시간까지 향기가 유지된다. 유이 노트로 마무리해 한층부터 기를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 100ml 15만8천원. 문의 1666-7891_by 에디터 생정민

스쿠 큐어 컬러 블러쉬 리미티드 #141 마블 무늬 색 영롱한 핑키미트 스쿠의 블러쉬를 보고 있으면 찬란한 여름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든다. 파우더리한 제형으로 볼 위에 살짝 얹어주면 자연스러운 발색과 광채가 된다. 은은한 오일케어 케이스는 알고 가벼워 휴대하기 좋다. 7.5g 6만8천원. 문의 02-3479-1621_by 에디터 생정민

샤넬 뷰티 이더리 뷰티 마이크로 아이 크림 3천원대 개의 마이크로 비닐이 눈가를 따라 흐르며 눈이 잘 스며들었다. 눈가 부기는 물론 다크서클 완화 효과를 보였고, 무엇보다 강력한 수분감이 눈가를 오랫동안 촉촉하고 매끄럽게 유지해준다. 15ml 9만5천원. 문의 080-805-9638_chanel.com_by 에디터 윤자영



SHOWROOM

BEAUTY



라프레리 리프레리 리프레리에서 숨 쉬는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한 뿔 이틀 롱라스티 파운데이션을 여름 메이크업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리프레리의 특별한 기술인 에어웨이브를 적용해 가벼운 텍스처가 메이크업이 쉽게 무너지는 여름철에 제격이다. 아울러 쿨 톤부터 워밍 톤까지 다양한 스킨 컬러로 구성했다. 문의 080-835-0034

리프레리 스위스 최초 메종 라프레리 오픈 라프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거리인 반호프스트라세에서 스위스 최초의 메종 라프레리를 취리히 메종 라프레리를 오픈했다. 해당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비스포크 페이스리 트리트먼트 메뉴, 프라이빗 이벤트 등 럭셔리 스킨케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프레리의 한정판 디자인 오브제 및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390-1170

리프레리 스위스 최초 메종 라프레리 오픈 라프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거리인 반호프스트라세에서 스위스 최초의 메종 라프레리를 취리히 메종 라프레리를 오픈했다. 해당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비스포크 페이스리 트리트먼트 메뉴, 프라이빗 이벤트 등 럭셔리 스킨케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프레리의 한정판 디자인 오브제 및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390-1170

리프레리 스위스 최초 메종 라프레리 오픈 라프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거리인 반호프스트라세에서 스위스 최초의 메종 라프레리를 취리히 메종 라프레리를 오픈했다. 해당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비스포크 페이스리 트리트먼트 메뉴, 프라이빗 이벤트 등 럭셔리 스킨케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프레리의 한정판 디자인 오브제 및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390-1170

리프레리 스위스 최초 메종 라프레리 오픈 라프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거리인 반호프스트라세에서 스위스 최초의 메종 라프레리를 취리히 메종 라프레리를 오픈했다. 해당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비스포크 페이스리 트리트먼트 메뉴, 프라이빗 이벤트 등 럭셔리 스킨케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프레리의 한정판 디자인 오브제 및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390-1170

리프레리 스위스 최초 메종 라프레리 오픈 라프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거리인 반호프스트라세에서 스위스 최초의 메종 라프레리를 취리히 메종 라프레리를 오픈했다. 해당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비스포크 페이스리 트리트먼트 메뉴, 프라이빗 이벤트 등 럭셔리 스킨케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프레리의 한정판 디자인 오브제 및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390-1170

리프레리 스위스 최초 메종 라프레리 오픈 라프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거리인 반호프스트라세에서 스위스 최초의 메종 라프레리를 취리히 메종 라프레리를 오픈했다. 해당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비스포크 페이스리 트리트먼트 메뉴, 프라이빗 이벤트 등 럭셔리 스킨케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프레리의 한정판 디자인 오브제 및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390-1170



샤넬 뷰티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스킨 인텐서 샤넬 뷰티에서 레드 까멜리아 오일을 담은 레드 까멜리아 스킨 인텐서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식물성 왁스와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피부에 영양과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한다. 진주 빛 칼라인 소프트 핑크, 미디엄 코랄, 인텐스 앵버, 총 3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80-805-9638, chanel.com

FASHION



말바리 여름 캡슐 컬렉션 공개 영국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말바리에서 비빙스 시즌을 맞아 여름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말바리에서 앞서 출시했던 라이프스타일 라인에 피크닉 아이템을 추가해 선보였다. 낙력한 수납공로이 돋보이는 비스킷부터 민디린 오리엔탈과 콘플라워 블루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점프스 트라이프 의복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이번 여름 캡슐 컬렉션은 말바리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18-1439



말바리 여름 캡슐 컬렉션 공개 영국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말바리에서 비빙스 시즌을 맞아 여름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말바리에서 앞서 출시했던 라이프스타일 라인에 피크닉 아이템을 추가해 선보였다. 낙력한 수납공로이 돋보이는 비스킷부터 민디린 오리엔탈과 콘플라워 블루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점프스 트라이프 의복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이번 여름 캡슐 컬렉션은 말바리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18-1439

말바리 여름 캡슐 컬렉션 공개 영국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말바리에서 비빙스 시즌을 맞아 여름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말바리에서 앞서 출시했던 라이프스타일 라인에 피크닉 아이템을 추가해 선보였다. 낙력한 수납공로이 돋보이는 비스킷부터 민디린 오리엔탈과 콘플라워 블루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점프스 트라이프 의복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이번 여름 캡슐 컬렉션은 말바리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18-1439

말바리 여름 캡슐 컬렉션 공개 영국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말바리에서 비빙스 시즌을 맞아 여름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말바리에서 앞서 출시했던 라이프스타일 라인에 피크닉 아이템을 추가해 선보였다. 낙력한 수납공로이 돋보이는 비스킷부터 민디린 오리엔탈과 콘플라워 블루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점프스 트라이프 의복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이번 여름 캡슐 컬렉션은 말바리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18-1439



말프 로렌 페를 라벨



오메가 씨미스터 아쿠아 테라 월드타이머 2023 오메가 월드타이머 컬렉션에서 타이틀 에디션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2가지 타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38을 장착한 월드타이머 디스플레이로 구성했으며, 레이저로 표면에 색상을 인쇄 복극 위에서 바라본 지구를 담았다. 문의 02-6905-3301

오메가 씨미스터 아쿠아 테라 월드타이머 2023 오메가 월드타이머 컬렉션에서 타이틀 에디션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2가지 타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38을 장착한 월드타이머 디스플레이로 구성했으며, 레이저로 표면에 색상을 인쇄 복극 위에서 바라본 지구를 담았다. 문의 02-6905-3301

오메가 씨미스터 아쿠아 테라 월드타이머 2023 오메가 월드타이머 컬렉션에서 타이틀 에디션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2가지 타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38을 장착한 월드타이머 디스플레이로 구성했으며, 레이저로 표면에 색상을 인쇄 복극 위에서 바라본 지구를 담았다. 문의 02-6905-3301



오메가 씨미스터 아쿠아 테라 월드타이머 2023 오메가 월드타이머 컬렉션에서 타이틀 에디션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2가지 타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38을 장착한 월드타이머 디스플레이로 구성했으며, 레이저로 표면에 색상을 인쇄 복극 위에서 바라본 지구를 담았다. 문의 02-6905-3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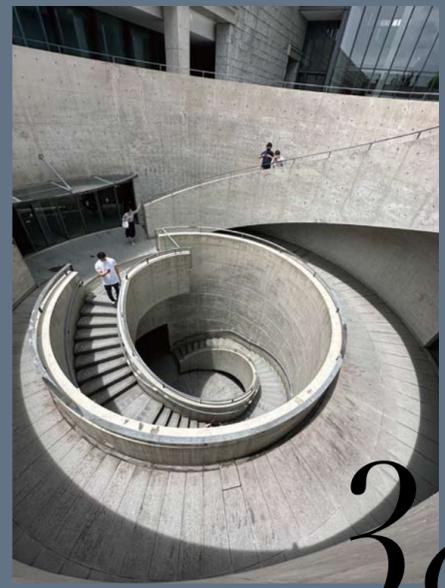


오메가 씨미스터 아쿠아 테라 월드타이머 2023 오메가 월드타이머 컬렉션에서 타이틀 에디션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2가지 타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38을 장착한 월드타이머 디스플레이로 구성했으며, 레이저로 표면에 색상을 인쇄 복극 위에서 바라본 지구를 담았다. 문의 02-6905-3301

ART + CULTURE



44



50



건축의 공간, 인간의 힘

38

지난 수년간 지구촌에 강타를 날린 팬데믹 세상에서 우리는 건축과 공간,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끊임없이 커다란 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건축은 유용한 경험의 선택을 제한하는 식으로 우리를 억제할 수도 있고, 기본 좋은 가능성을 여럿 따져보는 능력을 되찾게 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건축가이자 사진작가 헨리 플라머가 강조했듯, 건축이 인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방문했지만 친한 듯 들여다보지 않았던 일본 간사이 지방의 건축을 살펴보면 거장의 손길로 빛났지만 그간 몹시 황폐화되어버린 공공 명소, 창의적으로 새 단장을 하고 재생 건축으로 주변에 활기를 주는 미술관, 햇살을 받을 때면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깊은 숲속의 녹음에 자리한 명상 센터 등을 마주하니 건축이 그저 아름답거나 유용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가 펼쳐지는 영역이자 가능성의 총체라는 플라머의 실마리가 납득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스타일 조선일보> 'Art+Culture' 여름 특별호에서는 이토록 소중한 건축 경험을 다양한 시선에서 여러 경로 다루는 필자들의 '공간 산책'을 모이셨습니다. 알다시피 세상에는 다양한 건축과 공간이 존재합니다. 미적 오라와 메시지의 강렬함이 공존하는 작품을 설치한 작은 공간도, 압도적 위용을 뽐내는 듯하지만 친근하게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의 온기로 지탱하는 공공장소의 뜰도, 동시대의 문화적, 예술적 자산을 창의적으로 담아내는 미술관도, 그리고 '여행의 공간이라 불리는 호텔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하면 영혼이 침식당하고 마는 인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게 건축의 운명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마을, 동네에도 자유롭게 선한 의지와 창조적 영감이 깃드는 건축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풍경을 더 자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 <조선일보> 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46

JEWEL & WATCH

LIFESTYLE

빛이 머물다 가는 곳, 그 너머로...

‘일본의 지중해’ 세토내해의 만형, 아와지시마의 재발견

● 집 앞 바다는 한번도 파란 적이 없었다. 흐드러지게 빛이 머물다 떠나 버리는 빛의 정류소 같은 곳을 단일 색으로 언어화하면, 출아해 마지 않는 파랑과 바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언어로는 조망하기 어려운 바다는 손가락 변화를 포착하기에 눈부시게 빛나고, 처분하다가 성이 낫다가 그득해진다. 바다는 인공의 개념적 언어 너머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색이 태어난다. 이 바다 풍경 속에는 변화무쌍한 물결과 색으로 산란해진 마음을 달래주는 무뎡뎡해 보이는 성이 하나 담겨 있는데, 한국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아와지시마(淡路島)다. 높지 않은 산 능선이 안장감을 주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여름이 되기 전 봄날의 해무가 가득한 날은 감쪽같이 사야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신비한 섬이다.

●●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의 신화에 따르면 아와지시마는 이 나라에서 최초로 생겨난 섬으로 전해진다. 7백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존재하는 다도해로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세토내해(瀬戸内海)에 위치한다. 북쪽쪽의 혼슈, 남쪽의 시코쿠, 서쪽의 규슈로 에워싸인 세토내해에는 구시마 아오이의 ‘호박’ 시리즈를 비롯해 곳곳에 녹아든 예술로 유명한 섬 나오키마도 속해 있다. 한국의 거제도 보다 약간 넓은 아와지시마는 세토내해에서 가장 큰 섬이다. 고집과 ‘덕후’들의 성지, 니젠노모리를 비롯해 가족 단위로 즐겨주는 주말을 보낼 수 있는 테마파크, 인도 다다오의 규모가 가장 큰 프로젝트인 ‘유메부타이’, ‘물의 절’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건축가 반 사게루의 리트리트 사설인 젠보 세이네이(Zenbo Seinei)가 새롭게 들어섰다. 해외 유명 건축 미디어에서 앞다퉈 취재해 갔지만 아직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머잖아 예약이 쉽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의 명소다. ‘삼과 명상만을 위한 건축, 그리고 향상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회적 건축가 반 사게루의 최신작이다 한걸음에 달려가게 됐다. ‘건축은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그릇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아카시해협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아와지시마가 있다.

에서 ‘살이 회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있다.

●●● 본토(혼슈)에서 아와지시마로 건너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육로인 아카시해협교(이하 ‘아카시대교’)를 이용하거나 교배시 서쪽 아카시시에 위치한 선박 승선장에서 페리를 탄다. 보통은 차를 이용해 건너가지만, 해안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다소 한적한 아와지시마는 수많은 (자전거) 라이더가 페리에 자전거를 싣고 건너기도 한다. 아카시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다(3,911m). 1988년 착공해 10여 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완공 3년 전인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으로 자원이 내려앉아 길이가 1m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다리를 건설하면서 해저 지반에 무리를 준 영향으로 지진이 난 것은 아닐까, 하는 풍문이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아직까지 심심찮게 돌고 있다. 풍문이란 아닌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고, 아직까지도 돌아질 수 없는 무형의 상흔을 보듯하고 있다.

●●●● 지진 이후 복원 과정에서 ‘문화적 재건의 일환으로 교배에 지은 ‘효고현립미술관’, 아와지시마에 새로 들어선 반 사게루의 ‘젠보 세이네이’, 예전부터 반영의 상징이었던, 오사카 중심부에 자리한 섬 나부노시마에 새로 오픈한 ‘나부노시마 미술관’ 등 걸출한 건축가들의 작품이 잠재해 있는 간사이 지방의 ‘건축 루트’를 소개한다(이미 유명세 높은 나오키마는 제외했다). 코로나 기간 관광객 없는 일본은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지만, 조용했던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준비한 시간의 결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독학과 답사를 통해 건축가가 된 인도 다다오의 말을 빌리며 건축 기행 글을 시작하려 한다. 글·사진 **박혜연** 기획 **고성연**



아와지의 초목 속에 가려진 기하학적 도형의 건물 모습이 인상적이다. Courtesy of Zenbo Seinei



젠보 세이네이(禅坊禅房) 입구.



‘숙방’이라 불리는 공간. Courtesy of Zenbo Seinei

미래와 과거로 달려가는 마음을 붙잡고, 지금 여기에

● 반 사게루는 1994년 르완다 내전 난민을 위한 임시 주택 짓기를 시작으로, 간단히 니열하기에도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전 세계 재해 현장을 돌며 단순하고 위엄 있는 파란차와 공공 건물을 지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도와온 사회 혁신적 건축가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영예를 얻었으며(2014년), 이어 2017년에는 일본인 최초로 머더 테레사 사 회 의상(Mother Teresa Awards)을 받기도 했다. 이런 그가 가장 최근 한 프로젝트인 ‘젠보 세이네이(禅坊禅房)’가 지난해 4월 효고현 아와지시마에 들어섰다.

●●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캐노피. 기다란 행태가 머물기보다는 무한하게 확장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어디까지 뻗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평선은 자연에 없다는 그 ‘작선’의 모습으로 자체의 위엄을 당당히 했다. 100m 길이의 긴 캐노피를 떠받치고 있는 목재 기둥들이 구획놓은 빈 공간 사이사이로 하늘과 녹음이 들어왔다. 전형성을 벗어난 건물의 낮선 조형감, 현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나무 질감. “올라오시죠”라는 말을 나지막이 건네는 듯한 2층 명상 공간으로 바로 이어지는 드로미틱한 계



농가 레스토랑(農家レストラン 燗燗은 반 사게루의 시공자 재료인 종이투분, 즉 자연재료(紙)를 기본으로 사용한 농가의 모습을 한 레스토랑이다. 주변이 밭인데, 그림에서 채취한 것들을 사용해 요리한다. 이외에도 계절별로 다른 수확 채蔬이나 유근습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이 있었지만, 우리는 계단 아래 있는 입구를 통해 들어갔다. 은은한 삼나무 향기가 실내를 메웠다. 몇 걸음 입축 기공해 단단해진 삼나무 기둥이 눈에 들어왔다. 일본어로 ‘스기’라고 불리는 삼나무는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품종을 개량 중인데, 사실 삼나무는 공기 중의 습도를 조절하며 미생물 번식을 억제해 진드기나 환기미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친환경 재료다. 이 건축물이 숲속에 있음을 고려했을 때 업그레이드된 강도, 친환경성,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 다양한 미생물로부터의 방어성 면에서 선택받은 게 아닐까.

●●● 입구에서 들어선 다음 마주하는 로비 격인 다이닝에서 환영 차 세트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니 개방형 주방이 있다. 오픈된 주방은 자신감과 ‘신뢰’를 보여준다. 방으로 걸어가길, 측면 벽면이 나무 격자에 유리로 되어 있다. 유리 너머로 숲이 들어왔다. 실내 복도를 걷는데 마치 숲속에



농가 레스토랑(農家レストラン) 바로 앞 텃밭 한 가운데 서 있는 스머프의 집 같은 한쌍의 비선형적 울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날것처럼 신선했는데, 석회, 물, 진흙, 자루라기 등을 섞어 만든 친환경 집이라고 했다. 통기성, 조습성이 높으며 물안개(미안개)라 친환경 건축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다. 텃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용한다.

있는 듯했다. ‘숙방(宿坊)’이라 불리는 작은 다다미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일본에서 숙방은 승려들이 수행을 하거나 손레자들이 몸을 정화하는 숙박 시설을 의미한다. 방 내부도 외부와 마찬가지로 전부 나무로 되어 있다. 모든 가구가 천연 나무 소재이며, 심지어 플라스틱인 콘센트와 철제인 스탠드까지 나무 시트를 붙여 나무인 척 여운을 위장(camouflage)을 하고 있다. 입구부터 화장실용 인포그래픽 역시 나무판 위에 붓으로 그린 듯 전체적인 ‘자연 콘셉트’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내·외부를 통틀어 친환경적이며 따뜻한 디자인적 일관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숙방에 짐을 놓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젠 웰니스(Zen Wellness) 체형 공간인 2층으로 올라갔다. 자연의 파노라마 조망이 펼쳐지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앉아 있거나 해도 충분히 정신이 쉬고 갈 만 큼 푸르름이 대단하고 바람이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듯하다. 푸르름 속에서 들려오는 새 소리가 머리를 맑게 한다. 2층의 전원이 개방된 우드 데크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숲을 채우는 나무들은 평소 보던 나무들과 느낌이 달랐다.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올라온 것처럼, 나무들과 눈높이가 맞았다. 요가, 명상 세션이 끝난 뒤의 반가운 점심시간엔 젠보 세이네이의 오리지널 매뉴인 ‘젠보 요리’에 대한 세트의 짙은 소개로 식사가 시작된다. 샐러, 기름, 유제품, 밀가루를 제외한 채식 중심에 천연 발효 조미료로 맛을 낸 요리가 주를 이룬다. 일본의 발효 양자로 유명한 노부키기 후시키(Fushiki Nobuaki)가 감수해 개발한 음식이다. 쌀 누룩으로 7시간에 걸쳐 만든 감주는 구수하면서도 풍미로운 천연 단맛이 일품이었다. 내부에서 외부까지 도 한 층의 공간인 우드 데크에서 영혼의 힘을 얻고 아래로 내려가 입구의 반대 부분에 위치한 필로티를 둘러봤다. 가정자리로 갈수록 자연의 경사로 캐노피와 지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공간이 역동적으로 연출되었고, 그 아래에 사람 키보다 높은 천연석들이 한 자락씩 패한 공간이 드러났다. 젠보 세이네이의 건축 미학에 끌렸다면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반 사게루의 또 다른 아와지시마의 신건축, 농가 레스토랑(農家レストラン 燗燗)으로 향해보기를 추천한다.



콘크리트의 조목이 어우러지는 풍경 아래로 수평선이 보인다.

안도 다다오(Tadao Ando)의 살아 있는 흔적들

● 한창 오사카의 긴사이 국제공항이 지어질 시기에, 매립을 위한 대규모 토사 채굴로 아와지시마 북동쪽에 위치한 광대한 대지가 발가벗겨졌다. 이후 환경 재생 운동이 확대되면서 이 황폐한 대지를 회복하기 위해 안도 다다오에게 설계 의뢰가 건네졌다. 토지 재생이라는 점에서 나오시마와 결을 같이 했지만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는 조목이 다 사라진 상태였다. 오사카 출신으로 세계적 건축가로 입지를 다지고 있던 안도는 고민 끝에 거친 캔버스 위에 '사람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모토로 '꿈의 무대(유메부타이)'를 설계한다. 본래 '유메부타이(Awaji Yumebu-tai)'는 아와시 대교가 개통되는 1998년에 맞춰 완성될 예정이었다. 막 착공하려던 무렵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나 공사가 중단됐다. 진문자였던 아와지시마를 정밀 조사하던 중 부지 내 활성 단층이 발견되었고, 이에 설계 변경과 건설에 2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경사면의 상부에 세우려던 호텔을 아래쪽으로 옮기고 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계단식 화단을 디자인했다. 가로세로 4.5m의 화단 1백 개로 구성된 하쿠단(百段苑)에는 진혼의 의미로 국화와 효고현의 꽃인 백아국을 포함해 계절별로 다양한 색채가 어우러지는 한화단이 조성되었다. 계획 변경으로 생겨났지만, 현재는 유메부타이에 당도하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하이라이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는 건축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빛으로 가정한 자연이 이야기하게 해야 합니다."_by 안도 다다오

●● 가장 알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흠뻑 받고 있는 하쿠단을 부지 북쪽 상단에 위치시키고 그 아래로 빗물을 활용하는 순환 시스템을 사용한 계단 폭포와 수산 가공 공장에서 버려진 1백만 장의 조각캐드판을 재활용해 수작업으로 붙인 조개의 해빙을 비롯한 국제 회의장, 호텔, 일본 최대급 온실인 '기적의 별 식물관', 프롤나드 거든, 야외 극장 등을 포함한 해양 공원. 필자에게 세 번째 방문이지만 늘 햇볕이 쨍쨍한 더운 날씨에도 하쿠단의 끝까지 올라가보게 된다. 눈 아래에 펼쳐지는 단순하면서도 정엄한 기하학적 콘크리트 매스들로 작품을 그려낸 안도 다다오의 마음을 읽어보고 싶어서다. 단단하고 육중한 콘크리트의 반듯한 네모 속의 다채로운 어린 꽃들, 콘크리트 참탄을 반 이상 휘감아 덮어버린 담쟁이덩굴, 100여 년 전의 방문 때 보다 많이 부식되고 변색된 콘크리트, 어린 나무가 되어 울창해진 30년 전묘

신 화단의 모습. 건너 보면 온실과 야외극장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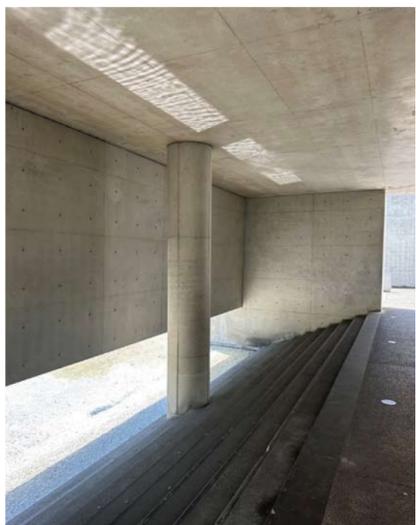
#사람과 자연의 공생, 유메부타이



한신-아와지 대지진 침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설계된 하쿠단.

목들. 건축은 완공되었을 때 끝나지 않는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시간을 관통해 변화된 자연과의 어우러짐과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공간의 건축의 한 부분인 것이다. 회색 콘크리트가 자연과 만든 하모니를 감상하다 보니 저 멀리 수평의 바다가 시야에 스며 들어온다.

"건축과 예술의 본질적인 협력은 건축의 그 투명하고 견고한 차가움에 대해 열기를 머금은 인간적인 것, 비합리적 신비함, 관용적인 정열을 대결시키는 것이며, 건축의 물리칠 수 없는 목적성에 대해 예술의 무(無)목적성을 대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극이 되어 긴장하고 대항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강인한 인간의 정체성이 생성됩니다."_by 다로 오카모토(岡本太郎)



물에 비친 빛을 천정으로 끌어올린 모습. 빛을 영리하게 활용한 안도 다다오의 건축의 묘미다.

● 안도 다다오는 사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 한국에도 그의 대표작이라 할 뮤지엄 산을 비롯해 최근 원광대 마곡 지구의 LG아트센터 서울, 그리고 제주도에도 작품이 여럿 있다. 그의 시그니처 재료인 노출 콘크리트를 고집하는 것을 두고 내 청조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안도 다다오에게 어쩌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지도 모를 것이다. 그가 원하는 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만들어내는 공간, 즉 '여백'이었을 테니까. 콘크리트는 그 자체가 구조재이며 마감재이기 때문에 건축 본연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마치 조스기의 흙차림 건축가에게는 원초적인 재료다. 이로 인해 그는 공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여백을 통해 빛, 물, 나무, 바람, 하늘 같은 자연의 요소를 초대했다.

"태양은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빛이 얼마나 멋진지 깨닫지 못합니다(The Sun doesn't realize how wonderful it is until after a room is made)."_by 루이스 칸

●● 1995년 일어난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추모하는 사회적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문화 부흥'의 상징으로 효고현립미술관(兵庫県立美術館)이 2002년 개관했다. 이 지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맡았다. 별도로 전신격인 효고현립근대미술관(1970)이 있지만 현재는 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효고현립미술관은 일본과 해외의 현대 조각, 판화 등 약 1만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예술의 전당'으로도 불린다. 근대 조각의 시조 격인 오가스트 로댕을 위해 알베르토 지코메티, 헨리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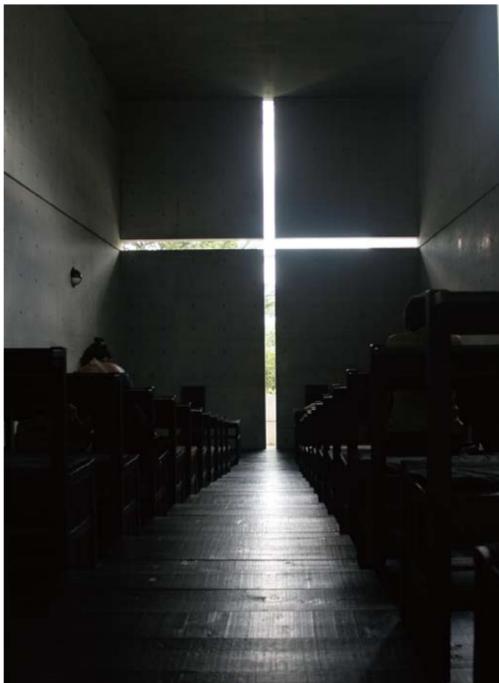
천에서부터 채광이 은은하게 내려오는 미술관 상부의 보이드 공간.

어 등 유수한 작가들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출신으로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가장 이우환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안도의 건축 모형과 드로잉 등을 전시하는 안도 갤러리(Ando Gallery)가 관내에 오픈했다. 오사카 외곽에 있는 안도 다다오의 고향으로 현재는 방문이 어려워진 빛의 교회나 유서 깊은 건물 파사드에 놔둔 채 내부 공간을 탈바꿈시킨 베니스의 Punta della Dogana, 피노 캄페리니 자리한 파리의 부르스 드 코메르스(Bourse de Commerce) 레노베이션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 효고현립미술관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도 다다오의 건축 미학이 여러모로 투영된 작품이다. 기단 위에 3개의 직육면체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바다 쪽으로는 커튼월을 사용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과거 철공소의 흔적을 남기듯 철을 북쪽 파사드에 사용했다. 내부로 들어가면 역시 노출 콘크리트가 등장한다. 건물 사이에 위치한 지상 2층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된 나선형 계단, '빛의 우물(Light Well)'을 보면, 20세기 투쟁은 미국의 현대건축 거장 루이스 칸이 늘 강조했던 '빛이 멋진 주연으로 등장하는 콘크리트 무대'를 펼쳐준다. 빛은 아름다운 콘크리트의 나선형 곡선을 타고 내려가 시간마다 다르게 조각된다. 행차가 없던 빛은 물체에 의해 이를 담겨 인조되고 발견된다. 우리가 순간순간 갖지 못하는 자연의 조리고 미묘한 변화를 안도만의 간결한 조형 언어로 번역한 공간이 이곳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옥외(바다마루에 놓인 조각 작품인 카타리 연두색 꽃시(청춘)는 안도 다다오가 미국 시인 시무엘 윌킨의 시 '청춘'을 모티브 삼아 디자인했는데, 미술관의 아이코노미로 사랑받고 있다.



효고현립미술관의 하이라이트 'Light Well', 꼭 해가 잘나는 날 방문해보기를 추천한다.



빛의 교회(Church of Light)는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인 사각 상자 모양의 건물에 삼차기 형태의 슬릿(slit)을 통해 침투하는 빛이 영속하면서도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빠져나온 나무 미팅방에는 노출 콘크리트와 공명하며 '빛' 외의 소리도 이 공간을 채웠던 기적 속에 함께 존재한다.



태양 빛의 입사각에 따라서 다르게 빛이 조각된다.

#여백으로 조각된 빛, 고메 효고현립미술관



나카노시마 미술관을 멀리서 보면 검은 큐브의 단단 건물처럼 느껴지지만 가까이 가면 1층은 전연 유리로 개방감을 드러낸다.

도시의 검은 큐브,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

● 검은 큐브 모양이 인상적인 미술관이 지닌 오사카 중앙부 나카노시마(中之島)에 세워져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어로 시마(島)는 '섬이란 뜻의 단어다. 도자마강과 도시보리강 사이에 끼여 있는, 아니 오히려 자기 구역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듯한 나카노시마는 동서 약 3km, 면적 50ha의 좁고 긴 물고기모양을 띤 도시의 섬이다. 나카노시마섬 안에는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코린트식 원기둥으로 떠받친 파사드가 매력적인 나카노시마 도서관, 벨기에 국립은행을 모델로 건축된 이름다운 동형 지붕이 특징인 일본은행 오사카 지점, 그리고 오사카 최초의 수상 공원인 나카노시마 공원이 자리한다. 또 메이지 시대가 갖 막을 내린 시점인 1918년에 자어 20세기 초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오사카시 중앙공회당도 위치한다. 그보다 더 앞선 에도시대부터 전국 각 번(藩)의 창고가 모여 쌀을 포함한 다양한 물자 판매가 이뤄졌던 '천하의 부엌'이라 일컫던 오사카의 중심이기도 했던 이 작은 섬은 풍부한 문화적 유산의 토대 위에 미래의 뜻깊은 유산이 될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섬 내부를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울거는 발걸음마다 멈춰 서야 하는 매력이 충분하고도 남는 곳이다.

●● 2023년 JIA 일본 건축 대상의 최종 심사에서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이 하치노헤시 미술관과 함께 선정됐다. 대형 건축사와 일본의 여러 유명한 건축가들을 제치고 당당히 공모에서 선정된 엔도 가쓰히코(遠藤克彦)가 설계를 맡았다. 바로 옆

에 위치한 명숙에 매립한 형태의 국립국제미술관은 대조적으로 지상의 커다란 직육면체 모양의 건축물이다.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을 설계한 엔도 가쓰히코는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지역의 상황을 비롯한 제법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전도 유명한 건축가다. 건축을 '사회 자본'으로 재발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건축 철학을 지닌 건축가답게 '본인의 색깔을 단단히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그 지역에 꼭 맞는 건축을 한다. 그는 이 미술관의 건축 철학으로 파사주(passage)를 꼽았다. 프랑스어로 보행자 전용 아케이드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파사주는 '연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유지임이면서도 도심 속 사람들이 머물다 갈 장소로서 '길을 내준 섬'이다.

●●● 미술관의 로비 격인 보이드(빈여 있는 공간)에서 전체 공간을 바라보면, 1층에서 5층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고, 그 안에서 높이가 무척 교차 배치한 에스컬레이터의 역동적인 모습이 간타하면서 대담한 검은 큐브 모양과 대조적인 느낌을 준다. 각 층마다 다른 느낌으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실내의 메탈릭한 루버재(珪藻土)는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필자가 방문했던 6월에는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사에키 유조(佐伯祐三) - 지하상으로서의 풍경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의 반 고흐라 불리기도 하는 사에키 유조(Yuzo Saeki)는 30여 년의 짧은 생애(1898~1928) 동안 불꽃 같은 예술혼을 불태웠던 인물. 주로 파리와 오사카, 도쿄를 오가며 거리에 서 미추진 풍경들을 주로 유화로 담았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기간은 4



야노베 겐지(Kenji Yanobe)의 '불을 내뿜는 로봇(The Fire-breathing Robot)'.



사에키 유조의 작품을 유심히 바라보는 관람객의 뒷모습.

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대편 양의 작품을 봤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며 5층의 커다란 전시실에 가득한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니 활활 타오르던 예술혼이 느껴졌다. 인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이라고 했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체력이 바닥 나 있었던 그가 붓을 내려놓지 않고 보아준 투자와 집중,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작품에 진지하게 잘 묻어 있다.

자하형 예술 벙커, 국립국제미술관

●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 바로 옆에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한 국립국제미술관(NMAO)이 이웃해 있다. 전위적인 모습의 메탈 기둥들이 춤을 추고 있는 조형을 지닌 입구로 통한다. 대 나무의 생명력과 현대미술의 발전과 성장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매립된 구조의 미술관 입구를 찾으려면 이처럼 눈길을 사로잡는 과한 무언기가 필요하지 않구나 싶기도 하다. 내부로 들어서면 티켓 창구, 매점, 보관함 등이 위치한 로비가 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자리한다. 지하 3층까지 들어간 깊은 공간이지만, 천장이 전체적으로 유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잘 스며드는 편이다. 이곳 역시 보이드 공간의 천고가 높아 시원스런 느낌을 자아낸다.

●● 국립국제미술관은 원래 1977년 만국부림회(엑스포) 기념 공원 내에 세워졌지만 사실이 노후되어 2004년 오사카 나카노시마에 완전 지하형 미술관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외벽은 없지만 단순하면서도 큼직하게 나뉜 공간은 작품을 감상하기에 손색이 없고, 국내외 현대미술 8천여 점의 컬렉션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예술 벙커' 같다. 설계는 작고한 아르헨티나계 미국인 건축가 사저 펠리(Cesar Pelli)가 맡았다. 그는 뉴욕의 세계 금융 센터, 현대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88층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비롯한 카튼을 사용한 다수의 세계적 랜드마크 건물을 건축했다. 초고층 건축물 전문가인 그가 이 미술관을 완전히 지하에 매립하는 형태로 설계한 건, 약간의 '일탈'이었을까, 주변 조건들을 고려한 의도적인 설계였을까, 아마도 주변에 이미 충분히 높은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하에 건물을 지음으로써 지상을 사람들이 편히 지나다닐 수 있는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려가 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위적 메탈 기둥들이 숲에서 실내로 수렴한 모습.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뒤편은 검은 큐브 형태의 나카노시마 미술관이 보인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깃든 교토의 미술관 풍경



입구 좌우로 펼쳐지는 하단 부분은 '우리 리본(ガラス・リボン)'이라고 불린다. 창고로 사용되던 지하의 공간을 드러내 일차선의 축선 공간을 삼입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위용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이다. Courtesy of Kyoto City KYOCERA Museum of Art. Photo by Takeru Kor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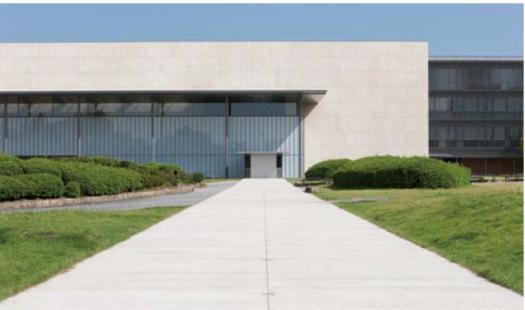
형태(形態)를 넘어 형상(形像)으로, 교토시 교세라 미술관

● 공간을 구축하는 형태로서의 매체를 넘어 형상의 '상(像)'을 쌓아기는 미술관이 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설계에 담아낸 교토시 교세라 미술관(Kyoto City KYOCERA Museum of Art)은 3년여의 개조와 증축을 거쳐 2020년 문을 열었다. 재개관하자마자 지구촌을 낯선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고요한 시간을 거쳤지만 알찬 컬렉션과 근대 일본화를 포함해 현대 디자인과 미술까지 아우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미술관이다. 레노베이션을 이끈 공동 설계자이면서 미술관 관장이기도 한 건축가 아오키 준은 부동의 건물 지체보다 이 공간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긴 이미지들이 시간을 관통하면서 변화하고 쌓여간다고 했다. 다중·출현된 겹겹이 쌓인 사람들의 '상(像)', 즉 이미지들이 풍요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라고 봤다. 바로 이 같은 신념을 기초로 삼아 헤이안 신궁으로 가는 '오카자키 프롬나드' 신책로의 한편에서 완만한 경사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미술관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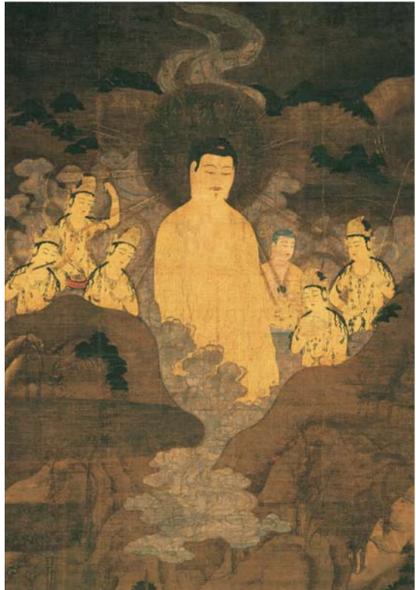
존하는 일본 공립 미술관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임을 존경하듯, 내재된 잠재력을 최대한 아름답게 끌어내면서 설계를 한 마음과 완성도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 설계는 단지 물리적인 형태를 제공할 뿐, 시간성이 부여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문화 속에서 '상을 쌓아기는 미술관. 교토의 고즈넉한 동네 허가시마의 신자락 아래 위치한 교세라 미술관은 예전보다 더 대중에게 친근한 형태의 제스처를 취하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현 시대의 미술관은 더 이상 '방문'을 하는 곳이 아닌 편하게 들러가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저 '작품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느끼고 둘러보기 위해 편한 발걸음으로 오고 가는 곳'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회적 공유적 공간으로서 미술관의 담백함이 낮아지고 있음은, 옛 건물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잘 살려 내며 새로운 건축물로 거듭난 교세라 미술관을 통해서도 상가하게 된다.

레노베이션 전에는 외벽이었던 기둥이 현재는 실내로 들어와 있다. Courtesy of Kyoto City KYOCERA Museum of Art



헤이세이 지신관. 직선을 기본으로 생겨난 공간의 바탕 속에서 다나구치 요시오의 상이 있는 대대입이 느껴진다. Courtesy of Kyoto National Museum



국보, 죽은 이를 맞이하는 아이티부처,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Courtesy of Kyoto National Museum



프랑스의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을 도입한 헤이세이 지신관의 정면. Courtesy of Kyoto National Museum

대담한 공간과 정교한 디테일, 교토국립박물관

● 교토국립박물관은 국립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박물관 소장품, 기증품을 포함해 1만4천여점 이상의 도자기, 고고학, 회화, 조각, 서적, 영색, 금속공예, 칠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미술품과 문화재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역사도 1세기 가 훌쩍 넘는다. 1897년 제국교토박물관으로 개관했는데,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메이지 고도관구 제국 교토 박물관 본관은 궁정 건축가 도쿠마 가타미(片山康熊)의 설계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 1백17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연 헤이세이 지신관은 옛 정면이었던 지금의 서문에서 가까운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신관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앞의 또 다른 건축 거장 다나구치 요시오(谷口吉生)가 건축 설계를 맡았는데, 그렇게 새로 탄생한 모던한 이미지의 신관과 구관의 대조적인 조화가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의 건축 거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다. '장인 정신'으로 임하는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 스투디오 자체의 규모를 크게 꾸려지지 않았고, 당연히 프로젝트 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미디어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스타덤을 향한 치열한 경쟁'으로 때로는 이름값이 빠르게 명멸하는 건축 세계에서 드물게 '그' 자신은 별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완성해나간 '그'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영롱한 빛을 발현하고 있다. 교토국립박물관에서의 산책은 또 다른 세기에 걸쳐 다양한 문화, 예술 전시로 많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다나구치 요시오의 '장인 건축'을 즐긴다는 점만으로도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건축에 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by 다나구치 요시오

●● 1937년생으로 이제 80대 중반이 된 다나구치 요시오는 다른



‘봄은 꽃, 어서 보러 오세요, 히가시아마, 색향을 다루는 밤 벚꽃...’이라는 노랫말이 시사하듯 교토의 봄은 벚꽃 덕분에 인기가 높는데, 사실 절정이 지나고 녹음이 싱그러wie 질 어지는 초여름이나 더 차분한 가을도 아주 매력적이다. 필자는 수년 전, 어느 가을날 블루보틀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산책을 하게 됐고, 이 고즈넉한 동네가 단번에 마음에 들었다. 아마도 기요미즈테라(清水寺)가 있는 기온 지구나 덴류지(天龍寺)가 있는 아라시야마 지구의 밀도 높은 거리의 인파에 치인 다음이라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훨씬 덜 북적대는 풍경이 가을의 정취와 잘 어울

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초록초록’한 기온이 넘실대는 초여름의 히가시아마 지구를 유유자적 거닐어보니, ‘교토 사계(四季)’의 또 다른 매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발에 차이도록 유적지가 많은 전통문화의 보고인 교토답게 히가시아마 역시 긴키쿠지(銀鏡寺) 같은 사찰을 비롯해 명소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귀족이나 일부 관계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사찰도 있는데, 남예산 묘법원도 그중 하나다. 포시즌스 호텔 교토(Four Seasons Hotel Kyoto)는 바로 이 묘법원을 이웃하면서 안쪽으로 숨은 듯 절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포시즌스 호텔 교토(Four Seasons Hotel Kyoto)

사계(四季)의 매력이 흐르는 오래된 정원을 품다

‘천 년 고도’라는 수식어를 거리낌없이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교토는 깊이도 너비도 출중한 도시다.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고 과거에 대한 존중이 반영되지만 현대성 역시 과하지 않게, 우아하게 공존하는 세련된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토는 반복적으로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다 보면 어느 여행이 그렇듯 지역을 구분 짓게 되고, 어느새 동네 각각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 하나 버릴 데를 찾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 철학의 길, 난젠지 등이 자리한 히가시아마 지구(district)를 아직까지는 ‘최애’로 꼽는다. 떠들썩한 인파를 피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고요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를 원한다면 휴식처럼 머무르기에 안성맞춤일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여행자라면, 혹은 첫 교토행이 아니기에 한 지역에 집중하고 싶다면 단지 ‘호텔’이라 부르기에 아쉬운, 당당히 히가시아마의 명소라 할 만한 요소를 품은 포시즌스 호텔 교토(Four Seasons Hotel Kyoto)를 기억해둘 법하다. ‘교토와 포시즌스’라는 브랜드의 조합인 만큼 ‘폼격’ 있는 정통 럭셔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다.



히가시아마산맥의 기온과 8백 년을 품은 정원의 정취

사실 필자는 호텔로 가는 길에 잠시 동네 구경을 하다가 길을 살짝 잃을 뻔했다. 시야에 묘법원 외관이 들어왔지만 호텔 건판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마침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당황했는데, 다행히 한 소녀를 만났다. 포시즌스 호텔 교토 근처에 교토 여자중·고등학교가 자리하는데, 등굣길에 자연스레 지나치게 되는 호텔 정문 방향의 입구를 알려 주면서 수줍게 미소를 띤 채 떠났다. 양쪽에서 연둣빛이 춤



1 2층 연 ‘샤쿠스이엔(Shakusui-en)’ 연못 정원을 둔 포시즌스 호텔 교토. 2016년 문을 연 이 호텔의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교토 중심부의 동쪽 히가시아마에 있다. 동쪽 강변을 따라 펼쳐진 히가시아마산맥 지역에 ‘히가시아마 문화’가 형성됐다. 2 일본 전통의 미묘한 스킨(Sukiyaki) 스타일의 티 하우스와 삼베인 라운지 등을 둔 후쿠(Fuji) 라운지. 역시 연못 정원을 옆에 둔 운 치 있는 전망을 즐기며 삼베인 라운지 각종 술과 차, 스낵 등을 즐길 수 있다. 3 일본을 대표하는 ‘천 년 고도’ 교토의 정취를 드러내는 호텔 입구로 가는 길. Photo by Seet, Ken / Four Seasons 4 비공개 사찰인 남예산 묘법원의 고아한 목조 지붕을 내뿜을 수 있는 객실(Deluxe Kyoto View Room)의 수려한 전망. Seet, Ken / Four Seasons 5 포시즌스 호텔 교토에는 오후루(육실)를 갖춘 스페셜 샵 수영장, 24시간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이고 삼림욕, 톨사이드 요가, 야외 필라테스 등 전문 강사의 함께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6 도쿄 출신의 스기우라 야스오시(Yasuyoshi Sugiyura)의 ‘Clay Flowers’라는 작품. 포시즌스 호텔 교토에는 이처럼 예술 작품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7 마시는 리서치 호텔에서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 요시다. 호텔 내에 연못 정원을 감상하며 식도락의 7월에 빠져들 수 있는 브라스리(Brasserie), 후쿠 라운지, 에도 스타일의 스낵 및 음료 수 있는 스시와 온도의 레스토랑과 스낵 바가 있다. 8 교토에서 생산하는 원료를 내세운 뷰티 브랜드와 그린 티 테라피 등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스파. 9 포시즌스 호텔 교토 내부에는 객실이나 레스토랑, 복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눈에 띈다. 10 1천개의 천수관음상으로 잘 알려진 히가시아마의 명소 산주산전도 안에 있는 법당. 포시즌스 호텔에서 도보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그 건너편에는 교토국립박물관이 자리한다. 한국에서 % 커피로 알려진 아라키라 교토 히가시아마 본점도 여서 멀리 있다. ※ 1, 2, 6, 9, 10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 5, 7, 8 이미지 제공, Four Seasons Hotel Kyoto



추는 듯한 대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지나 안쪽으로 꽤 깊숙이 들어선 이 호텔의 전면목은 정원을 따라 펼쳐져 있다. 12세기에 조성된, 그러니까 무려 8백 년 세월이 걸쳐 고유의 색을 간직해왔다는 ‘샤쿠스이엔(Shakusui-en)’ 연못 정원이 다(10,000㎡ 규모). 그 자체로 ‘보물인 만큼 포시즌스 호텔 교토는 전체적인 설계에 이 운치 있는 연못 정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배려를 반영했다는 인상이 절로 든다. 상당수 객실은 연못 정원 또는 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나무의 정기를 바로 맞대는 느낌을 자아내는 듯한 뷰(view) 맛집을 자랑한다. 또 비공개 사찰인 남예산 묘법원의 고아한 목조 지붕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도 근사하다. 건물 자체가 높지 않기에(객실의 최고층이 4층) 이 층연선 파노라마를 객실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복도에 난 창, 야외 산책길, 정원 앞에 자리한 레스토랑(Brasserie)에서 가까이 감

상할 수 있다. 전통 스킨(Sukiyaki) 스타일의 티 하우스 등을 둔 후쿠(Fuji) 라운지에서 유자 주스나 삼베인을 홀릭하면서 보는 연못 풍경도 감탄사를 절로 부르게 한다. 일반 호텔이 아니라 장기 투숙하며 취사, 세탁 등도 가능한 레지던스 형태로 운영하는 객실도 57개 있는데, 그중에는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두는 ‘특권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유유자적 ‘방콕’이나 단지 내 산책으로도 충만한 기쁨 ‘명품’이라 수식할 만한 호텔의 요건에는 건축 설계나 요소 요소 신경 쓴 디자인의 디테일, 그리고 미식과 스파 같은 시설과 흡집을 데 없는 서비스만 아니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알짜’를 갖춰야 한다. 호텔이나 리조트 단지 내의 분위기와 환경뿐만 아니라 위치나 인프라, 지역색도 고려해야 한다. 포시즌스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요 규범을 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럭셔리 호텔의 정석을 상징하는 ‘브랜드다. 포시즌스 호텔 교토의 자량은 ‘천 년 고도’ 교토의 위상에 걸맞은 아름다운 연못 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휴식’이다. 좋은 호텔이 그렇듯 굳이 호텔 밖으로 외출하지 않아도 볼거리, 먹거리가 구비되어 있고, 삼림욕을 하며 정원의 미학을 즐기거나 유자 향 가득 배인 음료를 풀어 넣은 욕조에서의 시간을 즐기며 방콕만 하더라도 아쉽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호텔 내 스파에는 마치 산맥의 능선을 형상화한 듯한 디자인의 일본식 ‘오후루(육실)’가 설치되어 있어 틈틈이 목욕과 사우나를 즐길 수도 있고, 정



기적으로 바뀌는 웰빙(피트니스, 요가) 프로그램을 정원에서 소화할 수도 있다. 필자가 머물렀던 기간에는 3층 로비에서 전통 ‘바이코(기생) 공연이 짧게 펼쳐지기도 해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국적인 퍼포먼스를 저마다 휴대폰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는 순간도 있었다. 사계의 매력이 절 따라 다르게 흐르고, 당연히 미식의 결도 달라지지만, 어떤 메뉴든 간에 샤쿠스이엔 정원을 벗 삼아 음미하면 식욕이 절로 돋는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물론 정말로 내내 호텔 안에서 꼭 박혀 있을 여행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교토행이 처음이라거나 유달리 도시 탐색을 향한 에너지가 넘치다면 말이다. 게다가 히가시아마 지구 전체나 그다지 멀지 않은 기온 지구까지 섭렵하지 않더라도 포시즌스 호텔 교토가 자리한 마에카와초(Maekawa-cho)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문화 예술 산책’이나 ‘카페 탐방’을 하기에 나쁘지 않다. 호텔을 바로 이웃하고 있는 남예산 묘법원은 특정한 날만 드물게 개방하므로 날짜를 잘 살펴야 하지만 100m 근방에 문화 예술 애호가에게는 필수 관광 코스인 교토국립박물관과 산주산전도(蓮華院)가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국립’인 만큼 독보적인 소장품은 물론이고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가 설계한 신관과 구관의 대조미가 돋보이는 건축, 카페와 아트 숍, 그리고 한국 ‘태생’의 조각품들이 놓인 뜰을 품은 교토국립박물관은 고미술과 역사를 좋아한다면 반나절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다. 바로 건너편에는 세계 최장(120m) 목조 건축물 33칸당과 그 내부에 있는 1천1개의 천수관음상으로 명성이 자자한 산주산전도가 있다. 후시라도 창조적 영감에 대한 갈망이 더 솟구친다면 지은인(知恩院), 아사키의 탑, 더 멀게는 철학의 길, 난젠지 등의 이 구역 내 명소까지 한가롭게 걸어서 가보는 ‘도시 산책자가 되어봐도 좋지 않을까. 기쁨씩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된 듯 ‘발품을 많이 파는 도시 산책도 언제든 돌아갈 편안한 호텔의 존재가 있을 때면 마치 정거장(하지만 몸집도 업그레이드된) ‘집을 두고 있는 듯 든든해지기도 한다. 글 고성연



44

44

45

45

45



45



Hoam Museum of Art

녹음 짙은 산속 깊은 곳, 영롱하게 빛나는 호수기에 자리한 용인 호암미술관. 사계절 언제 가도 저마다의 정취가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뽐어내는 정원으로도 유명한 호암미술관이 지난 5월, 김환기 회백 예술 세계의 정수를 담은 대규모 회고전을 앞세워 다시금 문을 열었다. 코로나로 인한 휴관에 이어 <아름: 위대한 지혜>전을 끝으로 1년 반 동안 내부 레노베이션을 거친 뒤라 더욱 반갑다.

<한 점 하늘 김환기> 회고전

회고전 제목인 '한 점 하늘'은 호암미술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정원에서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 1982년 개관한 이래 40여 년의 세월이 쌓여 옛 정취를 느끼며 오랜 시간 여유를 두고 머물고 싶은 정원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번 레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과 유산을 최대한 유지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 과거와 현재, 건축과 사람, 자연이 유연하게 연결되는 공간을 지향했다. 로비의 굽은 선을 유지하되 단정히 정리했고, 전시실 천장고를 최대한 확보하며 오픈 구조로 변경했다. 2층 라운지는 창호를 확대해, 정원인 화원과 외부 전경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장되지 않은 건축과 최소한의 디테일이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오히려 미술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되었다.

이번 회고전은 '문도', '나무' 등 다양한 초기작을 비롯해 신문지 작업, 조각, 드로잉 등 미공개작을 포함한 1백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김환기의 40년 예술 세계 전반을 아우른다. 스물네 살 청년 김환기의 사진, 작가의 애장품이던 백



자, 꼼꼼히 정리한 삽화 스크랩북 등 유족이 수십 년간 간직해온 유품과 흥미로운 자료 일부도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일반에 공개된다. 달을 바라보며 달항아리를 그리고 별을 바라보며 고국과 친구를 그리워하던 그에게 하늘은 예술의 큰 원천인 동시에 자연과 삶, 세상을 함축하는 개념이기도 했다. 2층 전시실에서 시작하는 전시 1부는 달/항아리라는 테마 아래 김환기의 예술 이념과 추상 형식이 정립된 1930년 중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작업을 소개한다. 이 시기에 작가는 한국의 자연, 전통을 자신의 작업의 주된 주제로 삼았다. 달과 달항아리, 구름, 산, 새 등의 모티프가 김환기 특유의 털어내고 비워내는 전형적인 추상 스타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가는 뉴욕과 파리 생활을 거쳐 한국적 예술, 한국적 추상을 향한 개념과 형식을 구축하는 데 더욱 전착해왔다. 전시 2부 '거대한 작은 집'은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추상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환기의 조형 실험이 비로소 선, 점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그려낸 바람과 우주, 하늘과 땅은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도 내일도 공명한다. 전시는 오는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hoammuseum.org) 참고.

THE GREAT BEAUTY: LEARNING FROM THE PAST

1977년 개관과 동시에 전 세계 건축계를 뒤흔든 리처드 로저스·렌초 피아노의 파리 퐁피두 센터, 프랭크 게리가 빛어낸 걸작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문화 예술로 말미암아 도시의 틀을 바꾸고 재생시킨 사례로 손꼽힌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루브르를 비롯한 유수 미술관 해외 분관 건립 붐과 더불어 삼성, LVMH 등 글로벌 기업이 앞다투어 컬렉션 전시 공간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건축가의 손길이 닿은 신진 미술관 건립은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현대미술의 다채로움만큼이나 작품을 품은 공간도 다양한 양상을 띠며, 건축 자체를 예술로 여긴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하지만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 했던가. 때로는 미술을 압도하는 화려한 건축은 아니라도 묵묵히 역사를 머금은 고풍스러운 공간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을 이끈 선구자들의 응축된 작품 세계를 풀어낸 뜻깊은 전시를 마주하는 발견은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거장의 예술 세계를 현재진행형으로 동시대와 공유하며, 지나간 과거로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생각을 꿈꾸게 하는 공간과 전시를 소개한다.



1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호수기에 설치된 프랑스계 미국 조각가 루이즈 부르주아의 대표작으로 엄마를 뜻하는 '마망'(Maman), 전통 한국식으로 꾸민 정원을 기념하다가 다터리는 신과 호수 풍경 너머 대자연이 품은 작품의 조형미에서 숭고함을 느껴진다. Photo by 고상연 2 '달과 나무'(1948), 73x61cm,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3 '문도'(1938), 60.7x72.6cm,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4 '한 점 하늘 김환기' 회고전 1부 '달/항아리'. 정면 한가운데 김환기의 대표 '여인들과 항아리'(1960)가 보인다.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Nam-Seoul Museum of Art

〈권진규의 영원한 집〉상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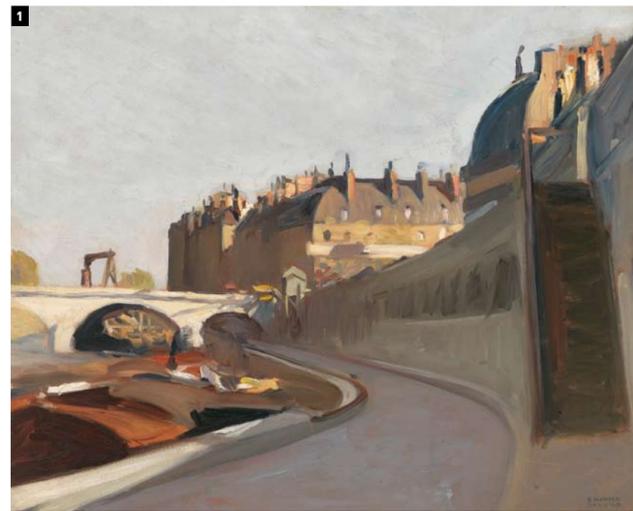
한국 근대 조각사를 대표하는 인물에 헌정한 <권진규의 영원한 집> 상설전이 6월 1일 공개됐다.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관에서 권진규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해 기념사업회와 유족이 기증한 작품을 위주로 개최된 회고전을 잇는 상설전으로 작가의 작고 50주기를 맞아 기획됐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장의 영혼이 영원히 안식을 취하고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한국 근대건축의 대표 유산으로 손꼽히는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구 벨기에 영사관)이 낙점되었다. 과거의 시간을 끌어안은 건축 미학과 조각이 조우한 입체적인 공간에서 작가의 작품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상설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흔히 리얼리즘 조각가로 알려진 권진규 조각가가 추구했던 것은 사실적인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혼, 영원성이었다. 그는 자연을 관찰·연구하면서 재현을 위한 노력을 담담히 계속해나가며, 자연과 견줄 수 있는 영원한 미의 전당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번 상설



전에서 남서울미술관 1층 전례를 매은 전시를 통해 권진규의 동물상, 두상, 인체, 부조, 불상이 이르는 조각 작품과 더불어 창작의 순간을 남긴 기록, 아카이브 사진과 자료를 공개해 작가의 작업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과 일본을 어렵게 오가던 작가의 삶과 마치 수행자처럼 작업에 임했던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엿볼 수 있다. 한편 권진규 상설전과 연계해 내셔널트러스트 시민문화유산이 그간 보존해온 성북구 동선동 작업실도 매달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일반에 개방한다. 조각가가 손수 지은 아틀리에를 방문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sema.seoul.go.kr) 참고.

1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건물 외관, 대한제국 시절 벨기에 영사관으로 사용된 건물(사적 제254호)로 1905년 화현동에 준공되어 1983년 지금의 남현동으로 옮겨왔다. © Kim Yongkwan 2 〈권진규의 영원한 집〉 상설전 전시 모습 3 토요일 북 11(1967), 30.2x26.3cm, 종이에 혼합 매체. ※ 이미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평범하고도 비범한, 일상적인 예술

일반적이지 않은 구도와 명암, 표정 없는 인물들에서 느껴지는 이 고요하고도 쓸쓸한 감정은 무엇일까. 그림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지만 시선을 땔 수 없다. 그림 속 인물들이 팬데믹 시대를 거친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더욱 마음을 이끈다. 전시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Edward Hopper: From City to Coast)>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리고 있다(8월 20일까지). '에드워드 호퍼라 하면 으레 떠올리는 대표작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평이 많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창기 풍경화나 생계를 위해 그린 일러스트 작품,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 부부가 그렇듯 애증의 관계였지만 호퍼가 빛을 볼 수 있게 조력한 아내 조세핀 호퍼의 기록 등 호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오직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생을 살아온 에드워드 호퍼.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이 이토록 고독해 보이는 건 아닐까.



김지우시 감독의 영화 <파티슨>은 파티슨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인어짜 버스 운전사 파티슨의 단조로운 일상을 그린다. 주인공은 아침 6시 10분께 눈을 떠 출근해 23분 버스를 운전하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먹으며 시를 쓰고, 퇴근 후에는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동네 바에서 맥주를 한잔 마신다. 월요일에서 시작해 일요일, 그리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서 끝. 이 영화는 마치 평범한 현대인의 일상 중 일주일만을 무작위로 골라 보여준 것처럼 특별한 구석이 전혀 없다. 그러나 잠깐 눈을 돌리면 규칙적이고 무로해 보이는 그의 일상도 소소한 시간들로 변주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일상의 틈에서 영감을 발견해 시를 쓴다. 출근 전 시집을 먹으며 시트에 놓여 있는 상감지에서 불현듯 영감을 얻고 성냥갑은 은유가 되어 사랑의 시로 미침표를 찍는다. 영화는 말한다. 시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 존재한다고,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로 알려져 있다. 필자가 처음 본 호퍼의 작품은 빔을 지새우는 사람들(1942)이다. 현재 시카고 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 전시장에 걸려 있는 이 작품은 어두운 밤, 불을 밝힌 바에서 한 남자와 남녀 커플, 그리고 일하고 있는 비둘기를 그린 그림이다. 지금도 밤늦게 뉴욕 가리를 배회하다가 아쉽게도 마주칠 것 같은 풍경이다. 고달픈 하루를 달라는 것이지, 다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지, 그들의 속사정은 알 길이 없었던. 마치 영화 <파티슨> 속 파티슨의 하루처럼 무로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네 사람의 일상이 그저 같은 화면에 포착된 것 같다. 호퍼의 작품이 어떤지 친근한 이유는 그가 택한 소재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 단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다. 그는 늘 주변 가까이에서 소재를 찾았으며,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림을 중단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여행을 하며 영감을 찾아 다녔고,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의 메인주 등 미국 동부 지역을 머물던 시기에 그는 자연스레 해안가를 그린 풍경화를 많이 남겼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보적 화풍 호퍼의 그림은 영화 <파티슨> 감독 김지우시 감독을 비롯해 앨프리드 히프, 빌 벤더스 등 현대의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들이 그려져 있지 않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인물들의 표정, 캔버스 안으로 드러난 밝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공기처럼 남겨놓은 여행의 공간. 호퍼의 그림은 일상적이지만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채워져 있지 않아 많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때론 텅 빈 페이지가 가장 많은 가능성을 선사해요." 호퍼의 그림들을 보며 영화 <파티슨>의 대사를 떠올린 이유다. 글 김민서

1 뉴욕에서 생활하며 일하던 에드워드 호퍼는 1906년 예술가의 꿈을 안고 파리를 방문한 이후 1910.7까지 총 3회에 걸쳐 파리에 체류했다. 시몬느 환경에서 그의 작품은 조금씩 변화했고, 1909년에는 파리의 건축물을 그리며 빛과 그림자의 대비, 시선 표현 같은 구도 등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그린 작품 그림 오르스탱 강변(Le Quai des Grands Augustins)(1909). © 2023 Heirs of Josephine Hopper/Licensed by SACK, Seoul 2 호퍼의 작품에는 건물의 창을 통해 밖에서 인물을 들여다보는 은밀한 시선이 자주 등장하는데, 도심 속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호퍼의 관철적 전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행운의 집(House at Dusk)(1939), Oil on canvas, 92.1x127cm. © Virginia Museum of Fine Arts 3 밤의 창문(Night Windows)(1928), Oil on canvas, 73.7x86.4cm. © 2023,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Scala, Florence 4 호퍼는 미국 뉴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의 매켄에 빠져 전통인 매사추세츠주 메인주의 해안 지역을 좋아했다. 이 시기에는 풍경화를 많이 남겼는데, 뉴욕과 다른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한 시가 있다. 안개 속의 메인(Main in Fog)(1926~1929), Oil on canvas, 88.9x151.3cm. © 2023 Heirs of Josephine Hopper/Licensed by SACK, Seoul ※ 1~4 이미지 제공: SeMA



Choi Man Lin Museum

정릉의 어느 조각가가 평생 가꿔온 예술이라는 정원 북한산과 청수계곡이 감싸고 있는 정릉은 예로부터 문인, 예술인과 유독 인연이 깊었다. 조각가 최만린 역시 1960년대 정릉에 터를 잡고 반세기 넘는 세월을 때로는 소박하지만 근원을 품은 흙을 주제로 삼아, 하나의 씨앗을 심어 정성스레 가꾸고 꽃이 피어나듯 빛어내는 작업에 진중하게 임했다.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은 그가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거주해온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작품을 베풀어온 아틀리에였다. 한국 근현대 추상 조각 거장의 흔적이 짙게 남은 붉은 벽돌 2층 양옥을 공공 미술관으로 조성해 성북구립미술관 분관으로 2020년 개관했다.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한 차례 개관이 미뤄

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옛 건축 구조를 최대한 살려 오랜 세월이 그윽한 멋과 자연스러움이 배어 나오는 공간의 깊이와 작가의 시대별 주요 작품이 꾸밈없이 어우러져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관람객을 맞이해왔다. 개관전 <흙의 숨결>, 최만린 1주기 추모전 <조각가의 정원, 다섯 계절> 등 대가의 작품 세계에 헌정한 전시에 이어 지난 상반기에는 오종욱 크리스 로가 공간의 직관적인 탐색을 거쳐 선보인 <사이의 리듬들>전을 기획했다. 두 후대 예술가는 미술관의 물리적 공간과 쌓여온 시간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장소에 흐르는 울림과 리듬을 감지하고 마주한 후 결과물을 내놓았다. 올 하반기 전시로는 최만린의 대표작 <이브>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같은 처참한 경험 속에서 제작된 작품을 통해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시가 오는 10월 개최된다. 혹독한 겨울에 비견될 폐허 속에서 예술가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작가가 보여준 삶의 의지, 고통 속에서도 옴트는 생명을 담아낸 결이 공간에 깃들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아직 드문, 한 작가에 헌정하는 미술관이라는 점도 특별하지만 무엇보다 60년 가까이 펼쳐온 작품 활동 중 최만린이 직접 수집한 자료 일부를 열람 가능하도록 구축한 아카이브는 실로 귀중하다. 연대스 크랩북을 모아 비치한 아카이브 서가에서는 작가가 활동하던 시기 사회적, 미술계를 가능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일상과 예술에 임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s://sma.sbculture.or.kr/cml>) 참고. 글 김민서

1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전시실, 조각가 최만린이 30년간 거주하던 2층 양옥을 성북구에서 매입해 성북구립미술관 본관으로 재구성했다. Photo by 텍스처온텍스처 2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정원, 최만린 작가는 사람들이 정원에 지어낸 자신의 작품을 살펴보고 느끼게 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Photo by 아트 길 3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전시 '흙의 울림' 작가의 대표작, 최만린, '이브 65-68'(1965), 35x35x80cm, 석고. Photo by 이정훈 ※ 이미지 제공: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사진가의 시선: 수집과 채집

19세기 중반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가 사진기를 발명하면서 미술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초상화를 필드로 회화는 재현의 기능에서 사진보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그러자 사진이 채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에 초점을 맞춘 세 살만 같은 화가가 등장했다. 그 후 19세기 후반 근대미술과 20세기 현대미술은 점차 재현보다 본질의 표현을 찾아 나서면서 다양하게 전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임을 담아낸 영상 매체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새로운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사각 프레임에 담긴 순간은 사진가가 우연 때로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배열하고 수집, 채집한 경험을 시각화해 감각을 전달하는 표현의 역할을 겸하게 됐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선을 담아낸 두 전시가 한국에 상륙했다. 프랑수아 할라르(François Halard)와 사라 반 라이(Sarah van Rij).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거장과 해석처럼 나타나 주목받는 젊은 사진가의 시선이 담긴 전시가 남산 자락과 친밀한 도시 풍경을 두루 품은 피크닉(piknic)에서 나란히 펼쳐지고 있다. 작년 이곳에서 열린 사울 레이터 사진전의 계보를 이을 전시다.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두 사진가는 여행을 삶 속 예술로 구현해온 루이 비통의 트래블 포토그래피 출간을 시리즈인 <패션 아이(Fashion Eye)> 컬렉션의 저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과 신념이 버무려져 있다. 한때 로마제국의 위용을 과시했으나 현재는 지진과 내전으로 상당 부분 파괴된 레바논 인근의 작은 고대 도시 발베크, 사랑하는 연인이 떠난 후 쓸쓸함이 감도는 사르데냐라 쿠폴라, 무너져가는 폐허가 된 엘레우사. 시간이 설계한 궤적, 세월이란 수레바퀴의 무게를 느끼며, 진정된 목적지는 장소가 아닌 새롭게 보는 방식이라는 한 소설가의 말이 땀땀다. 그의 다음 여정은 어디가 될까. 7월 30일까지.

사라 반 라이: 순간의 미학을 채집하다

피크닉 별관에서는 네덜란드 출신의 사라 반 라이(Sarah van Rij)가 특유의 섬세한 시선으로 서울이란 도시의 진솔한 면을 부각한 사진전을 선보이고 있다. 루이 비통 <패션 아이(Fashion Eye)> 서울 편 출간을 기념해 책에 실린 69점을 망라한 전시다. 2022년 초여름, 한국은 물론 아시아 대륙

자세를 처음 방문한 작가는 아무런 편견 없이 온전한 백자를 위임받는다. 서울 시민이 으레 일상에서 마주하는 풍경, 평범한 매일매일은 순간의 이야기로 빛어진다. 사물에 가려져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물의 모습을 포착하고, 동시대의 지표인 휴대폰이나 자동차는 의도적으로 배제해 보는 이로 하여금 시대의 면면을 꿰뚫어 보고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만든다. 원근감마저 사라진 듯한 프레임 안, 작가는 시간을 초월해 30년 전에도 존재했고, 30년 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서울의 결을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소중히 채집한다. 우연이 빛어낸 결정적 순간을 여러 차례 증첩시킨 이미지 너머로 작가는 오래된 것들, 그래서 그곳에 사는 거주민에게 점점 잊혀가는 것들을 쫓아가 담겨내 그리움을 자아낸다. 서울에 헌정해 무료로 공개되는 <루이 비통 패션 아이> 서울 전시는 7월 2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piknic.kr) 참고. 글 인터뷰 황다나

1 프랑수아 할라르는 그의 사진들 가리켜 자신의 취향에 열광적인 명사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말한다. 독특한 오리와 취향을 지닌 패션 디자이너 리크 오펜스 역시 할라르가 공간을 통해 기록한 인물 중 하나다. 2 <프랑수아 할라르 사진전: 비스트 프라이베(Viste Privé par François Halard)> 전시가 진행 중인 피크닉(piknic) 본관. ※ 1, 2 이미지 제공 piknic 3, 4 피크닉 별관에 선보인, 사라 반 라이가 함께한 여행 사진집 컬렉션 <패션 아이> 서울 편 일간 기념 전시 모습. 5 <패션 아이> 서울 편에는 처음 발간한 작가의 편지 없이 재출판된 작품이 대거 실렸다. ※ 3~5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프랑수아 할라르: 시간의 궤적을 수집하다
 사적인 공간을 카페와 렌즈에 담는다는 것은 타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가 짚놓은 섬세한 인생의 틀과 침묵이 짙은 농도로 스며든 집을 방문해 햇빛 한 줄기, 공기의 흐름이 꿈틀거리는 순간마저 관찰하고 포착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프랑스 출신의 포토그래퍼 프랑수아 할라르(François Halard)의 사진이 특별한 이유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으로 프레임에 무엇을 둘지 단번에 알아내는 안목과 오랜 친구에게 스스럼없이 교감하듯 인간적인 친화력이 배어 있기 때문이라. 아늑함이 녹아든 공간, 빛과 조우해 시시각각 자태를 달리하는 정물의 내면,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았을 사물의 속삭임, 생명력이 사진 한 점 한 점에 깃든다. 피크닉의 정원 산책길을 거쳐 나무문을 열고 전시장 입구로 들어서면 비스트 프라이베(Visite Privée)라는 전시 제목을 써놓은 플라로이드 사진 프레임이 여느 현관 문패처럼 우리를 맞이한다. 안으로 들어서면 벨기에의 대표적인 갤러리 스트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약셀 베르보르트, 텍사스 휴스턴의 이름난 컬렉터 존드 매닐, 생 로랑과 베르제가 각각 생을 꾸려온 공간이 교차한다. 아프리카 마스크와 로만 조각, 혹은 몬드리안 작품과 아시아 조각이 한데 모인 풍경이 클로즈업으로 포착되는가 하면, 선명한 오렌지, 초록색 스트라이프 벽지가 감각적인 빌라 판자, 깊은 흑백 명암 속 빌라 노아유, 정제된 베이지 톤의 랑베르 저택까지, 색채의 향연이 연달아 펼쳐진다. 아일랜드 그레이 저택의 해 질 녘, 데이비드 호크니의 LA 저택 수영장, 이탈리아 볼로냐에 있는 조르조 모란디 스튜디오의 정물들, 루이즈 부르주아의 관상사로 가득 찬 뉴욕 집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분위기 너머로

Interview with François Halard

스스로 '영혼 사냥꾼'이라 칭하는 프랑수아 할라르는 홈이 깃든 오브제, 살아 숨 쉬는 공간, 그곳에 숙환 인물의 정신이 녹아든 공간을 포착해왔다.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부모님을 둔 할라르가 무수히 많은 잡지와 전 세계 각지의 촬영 스튜디오를 거쳐 일상이 고스란히 담긴 인식을 담아온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다소 내성적이던 소년 할라르는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활약한 이브 & 마셀 할라르 부부의 자전 예술가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어릴 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가졌다. 12세가 되던 해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파리 18세가 저택을 배경으로 화보 촬영을 하던 패션 사진계 거장 헬무트 뉴튼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사진가의 꿈을 확고히 하게 된다. 25세에 이르러서는 잡지 출판업에서 독보적 권위를 지닌 콘데 나스트의 아트 디렉터 알렉산더 리버먼과의 만남을 계기로 패션계에 발을 내딛는다. 이후 <보그>, <GQ> 등의 패션 화보는 물론, 유명인의 초상, 장물에 이르는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차차 패션보다는 공간과 인물을 담아내는 데 매료되었고, 틈틈이 자신이 좋아하는 오브제를 수집하고 사진전을 내며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과 추억을 포착해왔다. 세계 도처를 여행하던 청년은 이제 62세의 나이로 접어들었지만, 오늘도 돋보이거던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을 번뜩이며 세계를 누빈다.

Q travel과 프랑스어로 일을 의미하는 travail은 어떤이 같다는 내용을 읽은 적 있다. 할라르에게는 특히 일과 여행이 뗄 수 없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당신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가? A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의 작업에 필수다. 나는 물론 일을 위해서도 여행을 다녀지만, 항상 나 자신을 위한 여행을 한다. 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나는 '그랜드 투어(Grand Tour, 17세기 중반 영국을 시작으로 구미 지역으로 확대된, 부유층 젊은이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유럽 주요 도시를 둘러보는 대륙 순회 여행) 신봉자'지만, 보다 친밀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도 때로는 여정의 애호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국의 여행 모두 똑같이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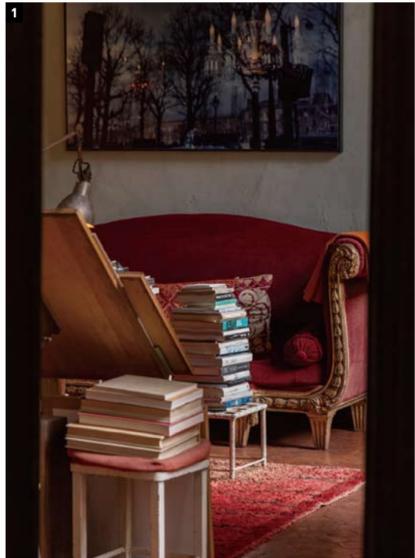
Q 스스로를 '영혼 사냥꾼(soul hunter)'이라 일컬었는데, 여전히 당신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나요? 서울, 공간은 물론 사각 프레임을 통해 포착하는 빛의 모양새나 색의 조화에도 영혼이 담겨 있다고 여기는지 궁금하다. A 그렇다. 나만의 유령들을 찍는 걸 좋아한다. 그들의 창조적인 정신을 소유하고자 노력하는 나만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Q 개인적으로 당신이 찍은 루이즈 부르주아의 아틀리에를 보며, 예전에는 몰랐던 그녀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됐다. 살아 있는 피사체나 인물이 아닌 사물 혹은 공간이 숨을 불어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탐험, 끊임없는 관찰, 대화, 호기심 등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당신으로 하여금 빈센트가 남는 세월 동안 카메라 앞에 서도록 만들었는가? A 우선, 무엇보다 호기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창작자나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의 세계를 탐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매년 사진을 찍으면서 강요할 만한 아름다운 상태를 포착하고 유지하고자 시도도 거듭한다. 만약 사진을 찍으면서 다시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진 찍기를 그만둘 것이다.

Q 때로는 명징하고 때로는 흐릿한 선, 형태, 색채가 충유를 이루 하나의 사진,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사진 미학을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젊은 나이에 카메라를 사용해 빠르게 승승장구했는데, 이에 따라 사진 작업을 전하는 방식이 변했다고 생각하나요? A 사진을 찍는 방식은 젊은 시절 사용하던 방식과 변함이 없다. 때로는 나 자신이 무엇을 찾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배한다.

Q 연주 시작 전 악기를 조율하는 연주자처럼 사진가를 들기 전 당신본의 습관이 있는지? A 카메라에 살짝 필름이나 플라로이드를 넣는다.

Q 당신이 출판한 수많은 책 역시 놓칠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사진 개인 당신 외에도 디자이너, 인쇄 기술자, 출판인이 합심해서 혼을 담아낸,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책이 출판될 때 도시의 파노라마나 자연 풍광, 삶의 모습이 여행자마다 다르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출판 작업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A 나는 책을 좋아한다. 책을 수집하기도 한다. 그래서 책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 역시 좋아할 수밖에 없다. 나는 종이에 펜 인크 냄새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도 좋아한다.



Q 책꽂이와 걸림돌 각각 구분에 사용하나요? 혹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A 내게 수직하는 오브제는 미치 부적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행과 만남의 추억을 상기하게 한다. 그것들은 자전적 요소와 같으며, 내 창조적인 예술 작업의 기초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Q 영감의 원천, 소원을 넘어 당신이 수집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있는지? A 내가 수집하는 오브제는 미치 부적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행과 만남의 추억을 상기하게 한다. 그것들은 자전적 요소와 같으며, 내 창조적인 예술 작업의 기초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Q 수집은 볼차병인가? A 확실히 그렇다.

Q 서울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한가? A 나는 이 도시의 에너지를 사랑한다. 서울의 따뜻함과 서울 사람들의 환대를 사랑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내 취향에 딱 들어맞는다. 한옥에 머물면서 백화점과 공예 예술을 감상하고 가까이할 기회가 있었다. 특히 장요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도예가 신경운의 작업실, 특히 분청사기와 미주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Q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대 도시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 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옛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 자금을 저장한다는 것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오랜 세월을 머금은 전통을 지우는 올바른 방식이 있을까? 당신의 견해가 궁금하다. A '신'이란 무엇인가? 신은 같이, 나비, 놀이감

1, 2 프랑스 남부의 소도시 마을에 있는 프랑수아 할라르 스튜디오. 3 프랑수아 할라르가 팬데믹 시대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아틀리에에서 자기 구비해 했던 56인칭의 사진들 플라로이드로 기록한 사진집 <인물>의 59장이 실린 작품. 4 남프랑스 로크브란-카프-마르셀(Roquebrune-Cap-Martin)에 자리한 아틀리에 갤러리 주택,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축물이다. 5 루이 비통의 사진집 <패션 아이(Fashion Eye)>의 일면. ※ 1~4 이미지 제공 piknic 5 프랑수아 할라르가 함께한 <패션 아이> 그리스 편에 실린 사진. ※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이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 네 가지 신성한 속성은 많은 이들에게 명상과 삶의 대상이다'라고 말한 12세기 성직자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Abbé Bernard de Clairvaux)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Q 오늘날에는 누구나 사진을 찍는 문화에 익숙하다. 고성능 사진 촬영 기능을 갖춘 휴대폰,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도 한몫했다. 예로부터 여행의 자연스러운 동반자였던 사진은 이제 매일매일 떠나는 일상이라는 여행자에도 동행한다. 비전문가가 여행 예술을 표현하기에 제각각의 방식으로 사진을 찍는 현시대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이들이 창조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조언하나요? A 실용적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예술성을 따지도 하는. 하지만 이 매체로 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긴 어렵다. 이미지의 화려한 측면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

Q 직관(intuition)과 느낌(sense) 중 택한다면? A 항상 둘 다 필요하다. 매년 영혼과 이성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하지만 말이다.

Q 미래에 꼭 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는지? A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허무는 표현 방식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언급하고 싶다. 사진과 회화를 넘나드는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a gem tucked in the mountains



1 **1** 조용하지만 총성처럼 강한 팬덤을 유지해온 리조트 브랜드 아만(Aman)의 장점으로 꼽히는 한 가지는 일단 '위치다. 접근성이나 명값을 따져 최고의 자리를 꿰찬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니, 어떻게 저기에 리조트를 지을 생각을 했지?"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천혜의 자연 속에 주로 자리 잡기에 때로는 아주 외딴 장소가 되기도 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심의 호텔조차 일상을 벗어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위치를 기막히게 선정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무던히도 공을 들인다. 리조트 디자인은 아름답지만 유난스럽게 포장하지 않는다. 절경을 품은 자연과 자연스레 호흡하듯 절제의 미학을 담아 머무는 이들이 평온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진심 어린 환대를 선사하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세심한 배려로 완성도에 정점을 찍는다. 아만이 고수해온 이 같은 철학에 동의한다면 베트남 남동쪽의 아기자기한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아만노이(Amanoi) 역시 마음에 담지 않기가 힘들 것 같다.

여행의 의미는 각자에게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부부마블이나 모노폴리 같은 게임판처럼 세계를 휩쓸고 다닌 증거인 여권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이도 있고, 현지의 사회와 문화를 파고들고자 체류하는 이도 있고,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 도피처럼 떠나는 이도 있다. "여행으로 도피해봤자 우리 존재의 역사상 가장 불행한 모습과 대면하기밖에 더하겠는가?"라고 씩씩하게 내뱉었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곱씹어보면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저마더의 이유로 여행을 떠난다. 또 우리에게 하늘길의 구석을 처절하게 겪게 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떠남의 갈망은 한결 더 짙어졌을지도 모르겠다.

떠나는 이유와 목적이 각자 다르더라도 낯선 곳에서 되도록 편히 쉬어 가게 해주는 '여행의 공간'이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아예 호텔이나 리조트 자체를 '집처럼 머물면서 즐기는 방식'이 여행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 꽤 되기도 했지만, 점차 다채로워지는 수요에 맞춘 '여행의 공간' 설계는 민첩하게 진화하고 있다. 진정으로 몸과 마음에 평온을 선사하고 싶은 이들이 즐겨 찾는, 혹은 버킷 리스트에 올려놓는 리조트 브랜드 아만(Aman). '도장깨기처럼 아만을 찾아다니는 이들에게 베트남의 진기(4~9월) 또는 겨울철에 방문하기를 권하고 싶은 곳이 아만노이(Amanoi)다(사실 우기를 피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편이 낫



겠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하지만 아만노이가 자리한 누이추아(Núi Chúa) 국립공원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리조트 내에 주로 머문다면 쾌적함을 누릴 수 있다.

녹색 스펙트럼의 산악 곳에서 바라보는 푸른 바다

바다 혹은 산 전망 중 굳이 선택하려면 필자는 바다든 호수든 물을 멀리서 내다볼 수 있는 '술세깁을 제일 '애정'한다고 말할 것이다. 세상의 녹색은 다 가져온 듯한 '그린 스펙트럼(green spectrum)'이 오묘하게 반짝이는 풀숲에 둘러싸여 있어 별래는 멀리하기를 바라고, 바다색 물결이 일렁이는 풍경이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아만노이는 바다와 산과 숲을 다 품고 있는, 아만의 명성에 걸맞은 탁월한 입지를 지녔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규모가 29,000ha나 되는 누이추아(Núi Chúa) 국립공원의 산악 곳에 자리해 독특한 암석으로 둘러싸인 빈히만(Vinh Hy Bay)을 유유히 내려다본다. 빈히만 역시 해양 보호구역의 일부다. 수 세기에 걸쳐 현재의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의 해안선은 유려한 곡선을 만들어내고, 바위가 많은 곳은 살짝 뒤로 물러나 금빛 백사장을 보호해주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으며, 거무스름한 푸른빛을 머금은 언덕이 묵묵히 해안을 보듬어주고 있다. 드론을 띄워 아만노이를 내려다보거나 특정한 각도에서 올라다보면 산자락에 수십 채의 집이 흩어져 있는, 신비감마저 지닌 평온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



자연과 함께 가까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의 마학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문을 연 아만노이는 이처럼 근사한 자연의 미는 물론 서식지 환경을 해치지 않고 되도록 함께 어우러지도록 설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아만의 건축 프로젝트를 다수 맡아온 장-미셸 게티(Jean-Michel Gathy)가 운영하는 회사인 데니스턴 인터내셔널(Denniston International)이 총괄했는데, 각 시설의 적절한 위치를 '풍경이 정하도록 했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아만노이 디자인의 본질은 건축 구성 요소와 바위, 초목과 전망을 나란히 두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입지와 세련된 건축 언어 사이에 항상 존재하는 대조미가 있지요. 또 재료를 선택할 때 최대한 산중을 기했습니다. 회색 타일로 초목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지붕 곡선은 구불구불한 땅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장-미셸 게티의 설명이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레이어(layer)'의 미학은 아만노이에서 하룻밤만 묵더라도 단번에 체감할 수 있다. 테이빙 뒤에 창, 그 뒤에 격자, 나무 줄, 산이 보이는 식의 레이어가 이어지면서 작은 드라마가 전개되는 듯하다. 아만노이는 온전한 심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모든 숙소를 독립형으로 설계했는데(가장 작은 파빌리온의 면적이 95㎡)다, 실제로 커다란 침대에 누워 시선을 수평으로 두면 야트막한 수납장 너머로 인락한 소파가 보이고, 그 뒤로 휴식 같은 욕조가 있는 욕실, 그리고 그 위 창밖으로 아련하게 펼쳐지는 바다 전망이 기본 좋은 여운을 빛어낸다(전망은 호수, 산, 바다 등 다양하다). 레지던스의 경우 5채의 숙소와 공용 공간, 야외 풀자락 갖추고 프라이빗 베틀러가 상시 대기해 미소로 보살피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같은 구역 내에 머무르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기에 좋다.



놀랍도록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품은 고요한 안식처

아만노이는 한국어에서 간단히 직항 노선이 있는 나트랑 공항에 내려서 1시간 30분가량 자동차로 들어가야 하는 산속에 위치한 쉼이라 숙소에서 머물 때는 도시 구경은 포기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리조트 내에 다채로운 체험 거리가 마련되어 있거나 인근 마을을 방문하거나 유적지를 돌아보는 로컬 체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스포츠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고요하고 수려한 해변 옆 화강암 절벽이 내려다보이는 비치 클럽이 가장 매력적인 '멀티 플랫폼'이다. 레스토랑에서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미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 스포츠와 액티비티도 얼마든 경험할 수 있다. 스피드 보트를 타고 가까운 어촌을 방문해 싱싱한 생선을 구경하거나 식도락을 만끽할 수 있고, 서핑, 스노클링, 카약 등도 인기 있는 해양 스포츠다. '공사의 피가 흐르다'면 자그마한 양궁장도 갖춰져 있음을 기억해두자. 시차 적응이 다 되지 않았거나 아침형 인간이라면 '일출을 겨냥

해 짧은 하이킹 코스인 '고가(Goga)' 봉우리에 올라 탁 트인 장관을 목도해볼 법하다. 정적인 웰니스 활동을 원한다면 연꽃 가득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요가 파빌리온이나 그 옆에 자리한 출중한 스파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와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다면 근교 투어의 백미라 할 만한 명소가 있다. 아만노이에서 자동차로 45분 남짓 달리면 비람과 태양의 도시로 불리는 닌 투언(Ninh Thuan) 지역의 주요 민족 집단인 참(Cham)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과 사원, 탑이 있다.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족의 역사는 언어, 문화, 건축, 공예 등으로 찬란하게 꽃피었다가 17세기 중반 영토 분쟁으로 크게 쇠퇴했지만 오늘날에도 16만 명 정도가 존재하며, 닌 투언 지역에 7만 명가량이 살고 있다고 한다(아만노이 직원 중에도 참의 후손이 있다고). 참족은 힌두교를 따르는 참 발람(Cham Balamon), 이슬람과 민속 신앙이 섞인 참 바니(Cham Bani), 이슬람교인 참 이슬람(Cham Islam) 등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자녀들이 모친의 성을 이어받고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는 모계사회다. 위대한 참족 왕의 이름을 딴 '포 끌롱 자라이(Po Klong Garai)' 사원은 100m 높이의 언덕 위 공원에 자리해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선사하는데, 13세기 후반에 지은 붉은 벽돌 탑의 미려한 자태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아만노이에서는 참족 특유의 의식을 관찰하듯 약식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요리법을 따른 미식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 발빛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에 커다란 화강암 바위로 둘러싸인 전망이 자못 매력적인 록 스튜디오(Rock Studio)에서의 만찬은 아만노이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줄 듯하다. 글 **고성연**

1 베트남 누이추아 국립공원 내에 자리해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아만노이(Amanoi). 세계적인 건축가 장-미셸 게티(Jean-Michel Gathy)가 신스크립트로 평화의 장소라는 아만노이의 의미를 담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독립형 건물 디자인을 택했다. 2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국립공원(아만노이)의 고도는 그리 높지는 않다(해발 66m 정도). 아만노이의 프라이빗 레지던스에서 보이는 이렇듯 아름다운 풍경. 3 고요하고 수려한 해변 옆 화강암 절벽이 내려다보이는 비치 클럽. 각종 해양 스포츠의 액티비티, 마스도 누릴 수 있는 물장롱이다. 4 아만노이에서는 양귀비 서핑, 스노클링, 카약, 트래킹,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5 아만노이의 레이크 웰니스 풀 빌라(Lake Wellness Pool Villa). 6 아만노이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근 골프장들 둘러싼 하늘에 노을이 물들고 있다. 7 스파 단지는 국립공원의 구불구불한 언덕에 둘러싸인 호수에 유유히 떠서, 저류지, 한증막, 온열 스킨 트리트먼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해한 아만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한다. 8 호수 위 요가 파빌리온. 투숙객 대상으로 명상과 태극권 등의 무료 클래스가 매일 열린다. 9, 10 위대한 참족 왕의 이름을 딴 포 끌롱 자라이(Po Klong Garai) 사원. 여러 양태의 붉은 벽돌 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2, 6, 9, 10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 5, 7, 8 이미지 제공 아만



Remember the EXHIBITION

여러 해를 지나 팬데믹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엔데믹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고립된 개인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지며 함께한 평범한 일상에 새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이기도 했다. 팬데믹 기간에도 많은 이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영감과 치유를 선사하는 역할을 했던 문화 예술계 풍경은 이제 더 거리가없이 대중을 향해 활짝 손짓하고 있다. 올여름 문화 예술 향유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전시 소식을 모아봤다.



큰 세션들 바라보는 법 국립중앙박물관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등

한국과 영국 수교 1백40주년을 기념해 영국 내셔널 갤러리와 함께 기획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등 한국과 영국 수교 1백40주년을 기념해 영국 내셔널 갤러리와 함께 기획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등 한국과 영국 수교 1백40주년을 기념해 영국 내셔널 갤러리와 함께 기획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등

전시 기간 2023년 10월 9일, 2027년 5월 30일까지 문의 museum.go.kr



워커힐 시아터에서 만나는 달리와 가우디 빛의 시아터 <달리: 끝없는 수수께끼>

프랑스에서 시작된 '빛의 시리즈'는 오래된 장소에 1백여 개가 넘는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설치해 세계적인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관객이 시각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재생 콘셉트의 몰입형 전시'다. 제2차 빛의 벵카에 이어 국내 2호 전시 공간인 빛의 시아터에서는 60여 년간 국내 공연 문화를 대표해온 워커힐 가이급홀을 새롭게 탈바꿈해 몰입형 예술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 실험적인 음악적 행보를 선보인 영국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The Dark Side of the Moon(1973)'과 'The Wall(1979)'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여러 앨범에 수록된 사운드트랙을 선택한 점이 돋보인다. 오로지 핑크 플로이드 음악만으로 채운 사운드트랙이 초현실적인 달리의 작품과 어우러지는 감각적인 조화가 일품이다. 이번 전시에는 달리 전시(35분)에 이어 달리에게 영감을 준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10분)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비르셀로니의 구엘 공원, 카사 밀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등 그의 대표작인 건축물을 나선형 그래픽 아트와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해 몰입감을 높였다. 이외에도 드넓은 자연 속을 거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상 아트 작품인 '또 다른 정원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전시 기간 2024년 3월 30일까지 문의 deslumieres.co.kr



감금이 쌓여가는 형상 없는 풍경 대추무 파인아트 <말 없는 말이하는 말>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김재호 작가. 원주에서 태어나 춘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의 전사가 강릉 대추무 파인아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국립 파리 8대학 조형 예술학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재호 작가는 현대미술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고, 그 여정에서 2016년 김종영 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보낸 유년 시절은 그에게 감정의 거저로 화성된다. 반항 때마다 머물던 할아버지 댁에서 눈으로 담았던 자연 속 풍경은 캔버스에 물들이는 물감들 위에 펼쳐지며 감금이 쌓인다. 처음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의 색으로 보이나 작품에 깊이 몰입하면 어린 시절의 기억과 풍경, 느꼈던 감정 등이 여러 번의 층위로 담겨 있음을 깨닫는다. 영동 지방의 늪새끼를 상상해 만든 스나무 판재 소재의 설치물을 비롯해 40여 년간 수집한 소품과 형상 없는 풍경화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아무것도 없는 풍경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그의 말처럼 전시장 속 관람객들은 무형의 작업에서 내면의 숨겨진 이미지를 찾아보며 상상력을 넓히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전시 기간 2023년 8월 15일까지 문의 daechumoo.com



사진 너머 또 다른 나, 새로운 세계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 <신디 셔먼>

동시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사진작가이자 미국의 상징적인 아티스트 신디 셔먼은 셀프 포트레이트 기법을 이용해 스스로가 모델이 되어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며 탄탄한 팬덤을 쌓은 스타 작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녀의 일과가 늘 만나볼 수 있는 작가인 알찬 전시가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다.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소장품 전시다. 신디 셔먼은 젊은 할리우드 영화배우, 역사적 인물, 광대 또는 남성과 같이 다양한 페르소나로 변신하며 사진에 수많은 모습을 담아 왔다. 최근 인스타그램 필터를 활용한 셀피를 통해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자아 정체성 탐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람객과 마주하는데, 이는 남성적 사회적 정체성 탐구, 자아 재정의 등을 통해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을 던지는 의미다. 클래식한 흑백사진 시절부터 현대 컬러 사진까지 50여 년간 긴 호흡으로 작품 세계를 넓혀온 신디 셔먼의 대표작이 궁금하다면 에스파스 루이 비통을 찾아보자.

전시 기간 2023년 9월 17일까지 문의 louisvuitton.com



올 하반기를 누를듯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현안 리움미술관 <권하유: 영원한 움직임-이상한 행렬> 등

올 상반기 최고의 전시로 각광받으며 막을 내린 <조선의 백자, 군자상학>, 그리고 이이름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전시 마케팅 열기를 불렀던 <마우리치오 카펠라: WE> 전시(7월 16일까지) 등으로 크게 주목받은 리움미술관. 이러한 열기를 이어 국내 동시대 미술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리움 M1 2층에서 열리는 권하유 작가의 신작 전시 <영원한 움직임-이상한 행렬>은 VR 체험형 작품으로 이목을 끈다. 리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 김홍도의 군선도에서 영감을 받아 '군선도' 속 인물의 행렬과 이야기를 가시화한 실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아울러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전시를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 년에 걸친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작가의 최대 규모 회고전으로 12월 3일까지 진행된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조각,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텍스트로 표현해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강서경 작가의 개인전도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용인 호암미술관에서는 한국 추상미술의 첫 장을 연 가장 길한기의 <한정 하늬> 전시를 진행 중이다. 리움-호암 순회 특별버스를 9월 7일까지 주 2회(화·목) 선착순 탑승으로 운행한다.

전시 기간 2023년 9월 10일까지 권하유 전시 문의 leum.org



한국 현대미술의 출발부터 종착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백 투 더 퓨처: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탐방기> 등

매해 시가, 장르, 주제별로 작품을 수집해온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적 양상을 담은 작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소장품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관에서 막을 올린 이번 전시는 총 4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1990년대부터 200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미술의 맥락과 동시대 미술 작품들이 평면, 입체,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인 작품을 공략했다. 더불어 구현하임 미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주최한 <한국 실화미술 1960-70년대> 전시도 선보였다. 근대화, 산업화 시대에 청년 작가의 실험미술을 다룬 이 전시는 기존 회화, 조각의 영역을 벗어나 오브제와 입체미술 또는 영화, 비디오 등 여러 매체를 '실험미술'로 포괄해 역동적인 사회현상을 풀어낸 작품을 7월 16일까지 선보인다. 한편 과천관에서는 <동북에서 가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이 내년 2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작품 2백9점 중 90여 점의 한화대 대표작을 선보이며, 한국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러 주제와 생활과 그림이라는 소재로 전사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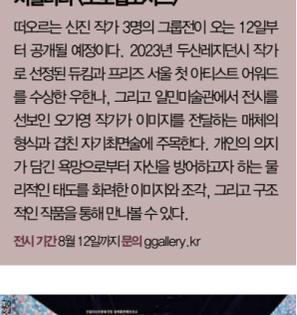
전시 기간 2024년 5월 26일까지 백 투 더 퓨처 문의 mmca.go.kr




세종미술관 <스니커즈 언팩스드 서울>

패션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니커즈는 단순히 신고 다니는 것의 의미를 넘어 투자 가치를 지닌 아이템이 되었다. 런던 디자인 뮤지엄의 월드 투어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를 거쳐 현재 서울에 상륙했다. 패션계에 큰 영향을 미친 스니커즈 문화를 독특한 전시 공간과 함께 소개한다. 아울러 역사적인 에어 조던부터 신소재 섬유로 만든 스니커즈까지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9월 10일까지 문의 sejongpac.or.kr



지갈래리 <오토한니스>

떠오르는 신진 작가 3명의 그룹전이 오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2023년 두산백화점 신작가로 선정된 유강과 피라츠 서울 첫 아티스트 어워드 수상한 우한나, 그리고 알모미술관에서 전시를 선보인 오정 작가가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의 형식과 결합된 자기화면술에 주목한다. 개작의 의지가 담긴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태도를 화려한 이미지와 조각, 그리고 구조적인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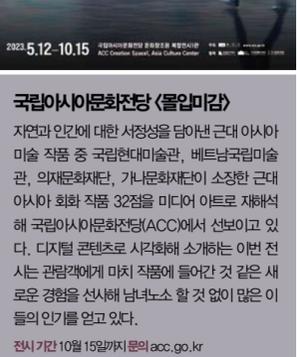
전시 기간 8월 12일까지 문의 ggallery.kr



송은문화재단 <행성극장>

제1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자인 권혜원 작가의 개인전 <행성극장>. 가상현실을 통해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이 서로 연대하는 과정과 의미를 영상과 VR 렌즈를 통해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연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기계들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한다. 관람객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전시에서 선보이는 다채로운 영상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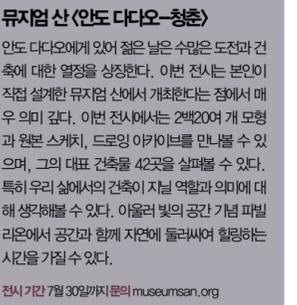
전시 기간 7월 29일까지 문의 songun.or.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몰입미감>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색성을 담아낸 근대 아시아 미술 작품 중 국립현대미술관, 벤테남국립미술관, 이태원문화재단, 가문회문화재단이 소장한 근대 아시아 회화 작품 32점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로 시각화해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에게 마치 작품에 들어간 것 같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전시 기간 10월 15일까지 문의 acc.go.kr



뮤지엄 산 <안도 다다오-청춘>

안도 다다오에게 있어 젊은 날은 수많은 도전과 건축에 대한 열정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는 본인이 직접 설계한 뮤지엄 산에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다. 이번 전시에서는 2백20여 개 모형과 원본 스케치, 드로잉 아카이브를 만날 수 있으며, 그의 대표 건축물 42곳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서의 건축이 지닌 역할과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빛의 공간 7개 필립 리온에서 공간과 함께 자연에 둘러싸여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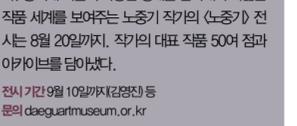
전시 기간 7월 30일까지 문의 museumsan.org



수원시립미술관 <어떤 Norm(all)> 등

'정상적인', '평범한'이란 뜻을 지닌 'normal'과 '모두를 뜻하는 'all'. 이 두 단어가 만나 속 다채로운 가족을 포용하는 <어떤 Norm(all)>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사회가 규정한 '정상적인' 가족 관념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는 주제를 담았다. 이 밖에도 물의 도시 수원엔 수집한 수원시립미술관 컬렉션 중 주요 소장품을 공개하는 전시 <물은 별을 담는다> 전시가 세 가지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해 내년 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전시 기간 8월 20일까지 문의 suma.swon.go.kr



대구미술관 '2023 아티스트' 김영진 등

지역 작가를 조명하는 대구미술관의 프로젝트인 '2023 아티스트(Artist)'에 선정된 김영진 작가의 <출구가 어디예요?> 전시가 오는 9월 10일까지 진행 중이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뉴미디어, 사진 작품 등 34점을 조명하는 <회화 아닌(Not Paintings)> 기획전도 10월 9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형태를 담아내며 폭넓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노중기 작가의 <노중기> 전시는 8월 20일까지, 작가의 대표 작품 50여 점과 아카이브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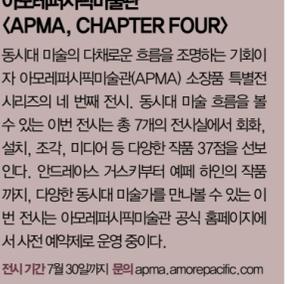
전시 기간 9월 10일까지 문의 daeguartmuseum.or.kr



아모레퍼시픽미술관 <APMA, CHAPTER FOUR>

동시대 미술의 다채로운 흐름을 조명하는 기획이자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 소장품 특별전 시리즈의 네 번째 전시. 동시대 미술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총 7개의 전시실에서 회화, 설치,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작품 37점을 선보인다. 인드리스 커스키부터 예매 하인의 작품까지, 다양한 동시대 미술가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전시 기간 7월 30일까지 문의 apma.amorepacific.com



갤러리현대 <무한한 숲길>

일반적인 사물 재료를 '돌내기'와 '매우기'라는 독자적인 작업 방식을 선보이며 새로운 차원의 평면성에 대해 탐구한 정성화 작가의 개인전이 갤러리현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재료와 대상에 관한 조형적 탐구를 데콜라주, 프라타주 작업 기법으로 탄생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장 1층에서는 공간 구축의 바탕재로 고려도를 선택하고, 일련의 작업 과정을 담은 작품을, 2층 전시실에서는 종이 바탕으로 평면을 향한 탐구 정신을 담은 여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16일까지 문의 galleryhyundai.com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Home Stories>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의 힘을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이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는 지난 4월부터 현대인의 주거 환경에 대한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전시 <홈 스토리즈>를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래형 모빌리티 디자인으로 체재한 아이오닉 콘셉트 '세븐'과 함께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이 소개하는 1백 년간의 주거 문화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변화해온 인류의 생활 주거 환경과 이동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 모빌리티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10월 1일까지 문의 motorstudio.hyundai.com

PANERAI

LABORATORIO DI IDEE



R A D I O M I R
Q U A R A N T A
U N A S T O R I A L E G G E N D A R I A

EXTEND YOUR INTERNATIONAL LIMITED WARRANTY
FOR UP TO 8 YEARS ON PANERAI.COM

갤러리아 EAST - 신세계 강남점 - 롯데 에비뉴엘 본점 -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 더현대 서울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판교점